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푸짐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7월 2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음식으로 인한 질병이나 해충들로 발생하는 고질병으로 각별히 건강에 신경이 써지는 때가 바로 요즈음이다. 무더위로 잘 먹지못하거나 자칫 상한 음식을 섭취해 고생하기도 하고, 병균을 옮기는 해충들이 극성을 부려 위협이 되기도 한다. 전염도 업고 심하면 생명까지 앗아가 버리는 여름철 질병. 이에 맞설 수 있는 건강관리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하겠다. 이미 이웃 일본은 '0 - 157'이라는 식중독으로 전국이 공포에 떨고 있다. 건강을 지키기위해 병의 예방과 간병에 대해 부처님에게 지혜를 배운다. 〈편집자 주〉

병을 잘 다스리는 것

네 가지 법을 필요와 분별에 따라 성취하면 큰 의왕이라 하나니 네 가지 법이란 첫째 병을 잘 아는 것이며, 둘째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며, 셋째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며, 넷째 다시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잡아함경〉

병든 사람에게는 선택해 때맞춰 먹이고, 의약을 쓰며, 걱정, 기쁨, 진심을 품지 않게 하며 간병인을 향하여 순종하게 하라. 〈증일아함경〉

사람의 몸은 지, 수, 화, 풍 4대가 화합하여 된 것이므로 하나가 고르지 못하면 백병이 생기고, 4대가 다 고르지 못하면 4백 가지 병이 동시에 생긴다. 〈오왕경〉

너무 과하게 먹으면 숨이 차고 몸이 거북하고 백박이 고르지 못하여 마음이 막히게 되니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편하지 않느니라. 〈증일아함경〉

"중생의 병은 네 가지 원소로 부터 생기며, 이러한 병이 있기 때문에 나도 병든 것이다." 〈유마경〉

환자는 음식을 가릴 것, 제때에 먹을 것, 의약을 사용할 것, 화를 내지 말 것, 간병인에게 순종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간병인은 약의 양을 분별할 것, 환자에 대해 게으르지 말 것, 수면을 줄일 것, 법으로써 공양하고, 음식을 권하지 말 것, 병자에게 법을 설할 것이니, 병자와 간호인이 여기에 반하면 병을 고치지 못한다. 〈증일아함경〉

나는 천상에서나 인간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훌륭한 베품을 보지 못하였다. 병든 이를 돌보는 이는 큰 공덕을 얻을 것이고, 명예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이며, 감로법을 얻을 것이니라. 〈증일아함경〉

모든 병은 어찌해 생기는가. 사람이 봄에는 더위를 거치며, 여름에는 술을 마시며, 겨울에는 취위를 거치기 때문에 그 몸을 상하여 저절로 병이 생기는 것이다. 〈대반니원경〉

관련기사 2면

여름 산문이 좁다

사찰수련 신청폭주…겨울출가도 요구

교구본사마다 시설마련 검토 필요

지난 6월10일 마감한 송광사 여름수련대회에는 무려 1천5백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 가운데 6백여명만이 6차례에 걸친 수련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해인사 봉도사 등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다른 사찰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14개 사찰. 2박3일에서 4박5일을 기간으로 1~7차에 걸쳐 실시, 2천5백여명이 수련대회를 거치게 된다. 올해만도 6천여명이 참가를 신청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이 참가자보다 훨씬 많다.

해인사 포교국장 도현스님은 "지금도 참가할 수 있겠느냐,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아예 입제식에 맞춰 찾아와 담당자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다시 송광사 수련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장덕규씨(45,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는 "더 많은 사찰에서 수련대회를 마련, 참가 기회를 넓혔으면 좋겠다"며 가능하다면 겨울수련대회도 개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각 사찰은 "3년전부터 신청자들이 폭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강원과 선원의 수행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3개월여 동안 온 사중이 수련대회에 매달려야 한다는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현재로선 모든 교구본사가 수련대회를 개최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구본사는 50~1백여명에 이르는 대중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 범어사와 쌍계사는 내년부터 여름수련회 개최할 계획으로 대중방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포교효과와 대사회 기여 등을 고려해 본사급 사찰은 가능한 수련대회를 개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설수련원의 건립이다. 송광사는 상설수련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부족등의 어려움으로 몇 년째 미뤄오고 있다. 대둔사도 수련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문경수련원(지도법사 법륜, 0581-71-6031) 대원사의 주말수련회(지도법사 현장, 0694-52-1755) 국신사의 동사섭법회(지도법사 용타, 0658-43-0917) 등에서 상설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빠르면 9월중 수련대회를 열었던 사찰의 담당자와 교구본사 교무·포교국장을 초청, 수련대회 경험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모임을 열어 수련대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지



◇교구본사마다 수련대회를 개최해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사진은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송광사 수련대회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청와대 불자회 곧 출범

청와대불자회가 창립된다.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직원 가운데 불자는 약 50명. 이들은 최근 점심모임을 함께 하고 본격적인 창립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에 취미모임은 있었으나 종교모임은 불자회가 처음이다. 한 참석자는 "같은 직장에서 마음의 수련을 함께 하기 위해 조용한 모임을 갖자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해인총림 스님들이 산중총회를 갖고 해인골프장 백지화를 요구하며 진입로에서 가두행진을 펼쳤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현정권 퇴진운동도 불사" 표명

15일 해인총림 골프장건설반대 총결의

청와대 · 국회 · 대법원등에서 철회진정서

해인골프장 건설저지를 위해 해인사 전체대중이 궐기하는등 저지운동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전면 백지화를 위한 해인총림 결의대회가 지난 15일 해인사에서 해인사 선원 · 율원 · 강원 스님을 비롯 종무소소임자와 15개 산내암자스님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고령 · 덕곡 · 대구경북대책위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지역 환경단체가 동참했다.

해인사주지 성법스님(해인총림 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며 법에 사람을 꿰맞춰서는 안된다"며 "관결이 어떻든간에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동운스님은 결의문을 통해 △사법부의 환경과괴를 합리화하는 비양심적 관결 중단 △(주)가야개발의 골프장 건설계획 자진철회 등 5개항의 결의사항을 채택하고 골프장건설이 강행될 경우 해인총림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현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해인사는 지난 17일 총림명의로 청와대 총리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 정당대표 등 중앙 16개 부처에 진정서를 보냈다. 또한 18일에는 4개 대책위와 연대해 '백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조계종 산하 25개 본사를 중심으로 63개 선원과 18개 강원 및 범시민단체를 포함시킨 가운데 전국 동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25개 본사에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가야산에 골프장 사업승인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부착하도록 종단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11월 WFB 한국대회 준비 '순조'

월탄스님 총재추대

WFB(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본부는 지난 12일 앰버서더호텔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월탄스님(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을 한국본부 총재로 추대했다. 이로써 오는 11월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서 열리는 WFB 세계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3대 회장에 박동기 현회장을 유임시켰다. 11월 세계대회 명칭을 '제20차 WFB 및 제11차 WFBY 총회 한국대회'로 확정했다.


◇종하스님


◇자용스님


◇보각스님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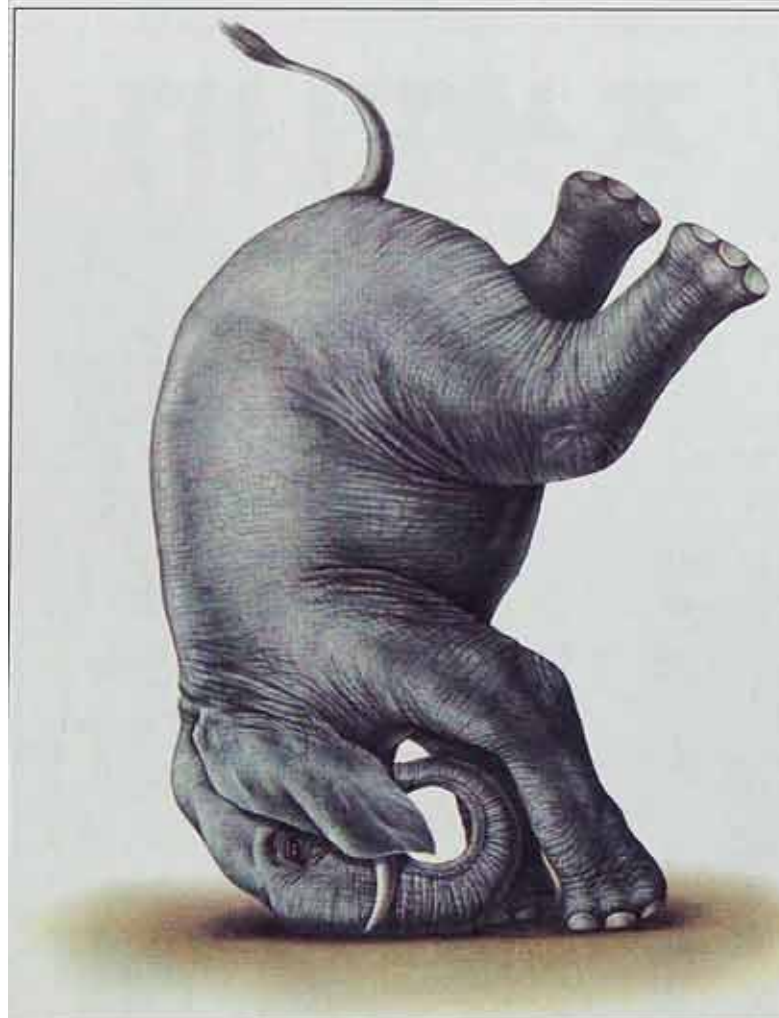
△종하 불교방송 이사장: (2구좌) △보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소찍새마을 원장: (5구좌) △자용 수국사 주지: (2구좌)
(7월11일 현재 총 369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 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마당—폐사지 복원 3면
불교무형유산 문화재지정을 6면
BBS 공개방송 '포교현장' 14면
불교교양대도 정규대 가능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22-1220-3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력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전선류, 계전맵, 용접기, 철탑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전설비, 화학장치, 삭도설비


자동화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가는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제정설비, UPS, PLC 등 전력전자, 물류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하산할땐 누구나 남산에찬자"

특 별 기 획

경주남산 재조명

연재 순서

① 총 론
② 남산은 어떤 산인가
③ 남산 훼손실태
④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⑤ 남산 이렇게 지키자
⑥ 남산으로 떠나자

눈보다 마음으로 오르는 산 '발길마다 자긍심'

불상·탑에 깃든 정토염원… "민족혼 살아있다"

남산은 단지 등산을 목적으로 오르는 산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공으로 사람과 자연의 절묘한 어울림을 드러낸 조각솜씨. 바위에 정을 쪼아대며 기원했던 정토의 소망이 스며있는 곳. 조상들의 삶이 그러했다. 그런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자 올라야 하는 산이다.

불교인에겐 부처님을 만나는 산이다. 불교인이 아니면 어떤가. 1천년도 훨씬 넘는 시간의 공백을 단박에 메꿔주며 신라인의 영혼과 교감하는 신비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야 하는 산이다.

따라서 반드시 남산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올라야 한다. 눈으로만 봐서는 가르침이 없다. 눈요기와 등산을 원한다면 빼어난 경관을 지니지도 않은 남산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산은 얼마든지 있으니 그쪽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남산에 관한 책 한권쯤을 읽고 남산흙을 밟아야 도리이다. 왜 시인들이 남산을 가리켜 "불교유적의 보고요, 민족예술이 뿌리내린 곳"이라고 했는지,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은 산"이라고 남산을 예찬했는지 물음표를 가슴 한켠에 품어야 마땅하다. 다행히 사진을 곁들인 남산 책이 여러 종 나와 나와 있다. (△경주남산(1,2)/윤경렬/대원사 △겨레의 땅 부처님 땅/윤경렬/불지사 △경주남산/김원룡 강우방 강운구/열화당 △경주남산의 탑골/윤경렬/열화당 △경주/한국문화유산답사회/돌베개 △돌부처/이근후/여시아문)

70개코스 사전지식 필요

그 다음 필수품은 지도. 신라문화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경주남산 실측지도가 있다. 남산의 유적목록과 순례코스 주요등산로의 실측거리를 표시해 초행자에겐 매우 요긴하다. 또 고산자의후예들에서 펴낸 남산의 모든 석불 위치를 표시한 지도 '경주남산'도 있다.

코스는 무수히 많다. 신라문화원에서는 포석정 삼릉 서출지 탑골 등 21개 지점에서 출발해 정상인 고위봉과 금오봉으로 오르는 70개의 코스와 종주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어느 곳을 출발점으로 삼던지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않고 여러 갈래의 길을 바꿔잡을 수 있으므로 미리 목적하는 답사지를 정해두어야 한다. 한 코스를 택하더라도 최소한 5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남산은 남북으로 길게 거북모양의 산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대개 동쪽 또는 서쪽을 이용해 오른다.

남산 동쪽에는 절골 미륵골 국사골 등 여러 계곡이 있으며, 초입부터 절터와 불상 석탑과 마주친다. 김유신과 기녀 천관의 이야기자 전해오는 천관사터, 불곡석불좌상, 미륵골 석불좌상, 헌강왕릉, 개선사터 등이 있다.

남산에서 가장 빼어난 석불을 꼽는다면 칠불암(보물 제200호)이다. 통일전 바로 옆에 자리한 서출지에서 남산 동남쪽으로 가장 깊은 골짜기인 봉화계곡을 따라 약 50분 정도 오르면 큰 바위에 7개의 석불이 새겨져 있다. 남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불인 칠불암 주변에는 탑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옥개석이 흩어져 있다.

이곳에서 10분쯤 더 산행을 하면 탁 트이는 능선이 나타난다. 그 끝부분 바위산의 아슬아슬한 절벽에 감실을 파고 새겨진 감실부처님이 계신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쉽게 눈길을 거두지 못하게 만든다. 남산의 최고령 부처님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더 오르면 신선암. 멀리 불국사와 토함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쪽으로 산을 넘으면 남산에서 가장 큰 절터인 용장사지로 내려온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장 이근후교수(이화여대 신경정신과)는 "남산의 계곡마다 제나름 대로의 특성을 지닌 석불이 있지만 탑골의 마애조상군(보물 제201호)이란 이름의 사방불이 가장 아름답다"며 남산에서 빼놓아서는 안될 순례코스로 꼽았다.

탑골 마을 초입의 옥룡암을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방불은 높이 9m 둘레 26m의 바위에 동서남북 사방에 여래상 보살상 비천상 나한상 및 탑과 사자 등을 새겨놓았다. 현실세계의 고통스러움을 승화시켜 고통이 없는 사방불정토의 이상향을 추구했던 당시 신라사람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다. 특히 북면 바위에 돋을새김된 탑은 황룡사 9층목탑의 원형을 추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방불을 지나 오른쪽 웃발골로 방향을 잡으면 남산성과 해목령으로 이어진다. 내친 걸음에 전망대까지 올라 내려오는 길을 삼릉골로 잡을 수도 있다.

가장 유물유적이 많은 답사코스는 서쪽의 삼릉계곡. 입구의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등 세 왕의 무덤이 한곳에 있어 삼릉계곡으로 불린다. 또다른 이름은 냉골. 한여름에도 오싹할 정도로 서늘함을 느낀다. 가장 많이 찾는 길이다. 마애관음보살상, 머리없는 석불좌상, 마애선각육존불 등의 부처님을 10분이 멀다하고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상사암-국사골을 거쳐 등쪽골짜기로 내려올 수도 있으며, 상사바위까지 올라가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금오봉으로 이어진다.

이밖에 서쪽 코스로는 포석정을 지나 오르는 부흥골(포석골) 유느리골 가늘골과 서남쪽의 용장골 열반골 비파골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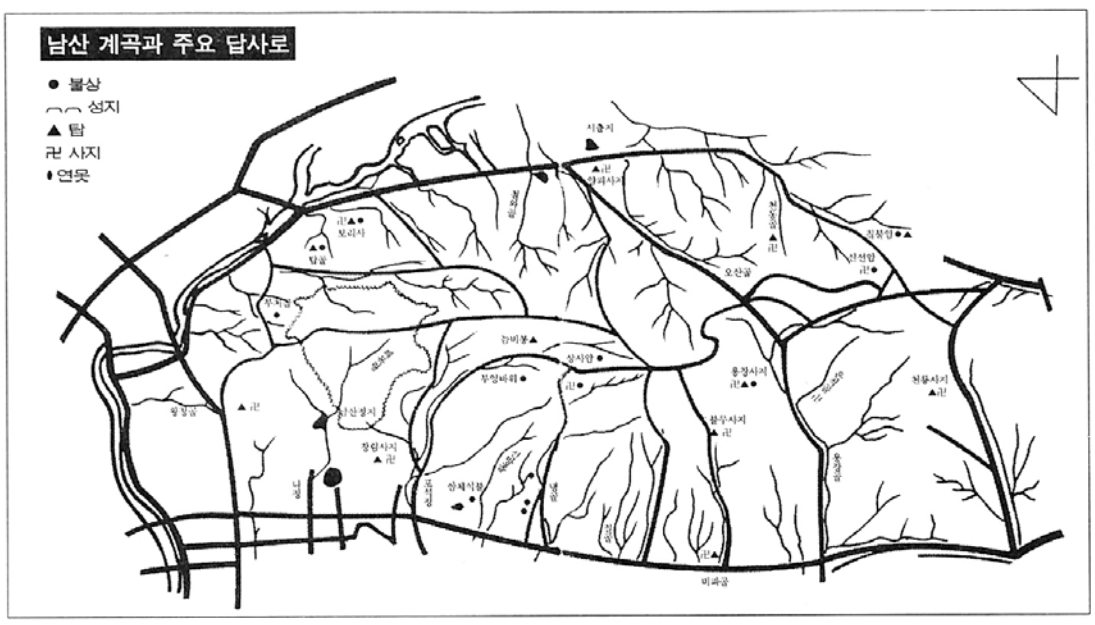
경주사랑모임등 '길안내'

경주사랑모임 신라문화원 등에서 길안내를 자청하므로 초행자와 단체순례 때에는 이곳에 도움을 청하면 알찬 답사를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순례모임에 동참하는 방법도 좋다. 남산사랑모임(회장 김덕수, 0561-42-2119)에서는 매월 셋째 일요일, 신라문화원의 禪다원유적답사모임(0561-771-1950)에서는 3, 6, 9, 11월에 정기순례를 실시한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02-760-5138)도 매년 한차례 정기 답사를 실시한다. 초행자들에겐 이들 단체의 답사에 동참하는 방법도 좋다.

신라문화원의 최희희씨(계림고 교사)는 일요일이면 길안내에 나선다. 남산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분별한 등산으로부터 남산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더 크다. 최씨는 남산이 오래전에 국립공원과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만큼 입산객수를 적절한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산제한은 어려우므로 직접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길안내라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국립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안내원의 동행없이는 입산을 허락치 않고 있는 싱가포르의 예를 자주 얘기한다.

남산을 가지 않고 경주에 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한 번 오르고서 남산에 갔다왔다고 말할 수 없는 산임도 새겨둬야 한다.

경주=정성운 기자



시 론

역사교육은 '기초공사'



김 상 영
〈중앙승가대 교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사 교과목의 개폐문제와 관련한 논쟁을 바라보면서 필자의 머리 속에서는 지난 '88년에 진행된 대학에서의 국책과목폐지 결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시 정부가 이른바 국책과목(國策科目)이라 불리우는 몇몇 교과목을 대학 교과과정에서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로인해 지금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교양 필수과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선택' 될 수 없는 국사과목

지난 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속에 포함되어 있는 국사 교과목에 대한 개편 내용 역시 당시 상황과 논리가 같다.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을 줄이겠다는 의도,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사를 통합사회교과에 포함시키고, 2, 3학년은 선택과목의 하나로 포함시키겠다는 개혁안은 국사과목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외면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연구회를 비롯한 15개의 역사연구 단체는 국사를 독립필수과목으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국사교과서의 집필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사학계는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부터 계속 개혁안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자 이같은 강경책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 문제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수습되어 갈 것인지 아직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나는 이 지면을 빌어 교육개혁위원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관부터 따져 묻고 싶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부분부터, 자기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선택의 개념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들을 묻고 싶은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의 일부 인사들은 이같은 학계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이들은 '과목 이기주의' 발상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세계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균형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사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진정한 민족교육이 아니라 자칫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세계화'에 역행하는 일이며,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국사를 공부했던 우리 국민이 국수주의라는 우물속에 갇혀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이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그들의 역사관은 과연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강조한 한 역사학자의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우리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역사교육은 그 어떤 과목보다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 민족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일은 결국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부실공사와 다를 바 없는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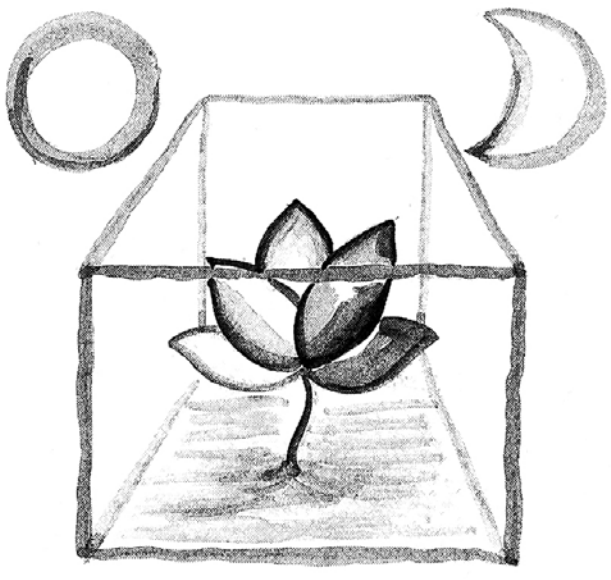
교육개혁위원회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기구라는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1년이 멀다하고 바뀌는 현행 교육제도 속에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원회가 충분한 여론 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개혁안을 마구 발표하는 모습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국사교육을 더 강화해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국사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나온 교육개혁안의 일부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없는 세계화는 위험

독도는 왜 일본땅이 아니고 한국땅이어야 하는가? 이 점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국사과목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편견이 어느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민족의 장래를 위한 일과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부디 교육개혁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생활 속의 불교 ㉜

스스로 일조권(日照權)을 포기하는 사람들



일조권(日照權)이라는 게 있다. 태양빛을 쬘 수 있는 권리를 이름이다.

가령 다른 사람이 내 집 앞에 높은 건물을 지어 햇빛을 차단하려 한다면 누구라도 법에 호소해서 햇빛 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건축법은 일조권 보호를 위해 아예 일정한 기준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거지 생활을 하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 갔을 때의 일이다.

대왕이 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도와 주겠다.'고 제의하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햇빛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좀 비켜 주시오."

그가 원한 것은 재물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따스한 햇볕이었다.

삶은 누구에게나 싱그럽게 열려 있다. 잘났든 못났든, 가진 게 많든 적든 관계 없이 제 인생 제가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모두에게 평등한 삶의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가령 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인생을 조금밖에 즐길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조권에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세속의 잣대로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신분의 차이, 부의 차이, 능력의 차이, 학력의 차이… 온통 차별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후천적으로 지어 낸 산물이지, '태어남'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가령 햇빛이 잘 드는 남향 집과 햇빛이 잘 안 드는 북향 집은 그렇게 집을 지은 때문이지 태양 때문은 아니다.

중생은 누구나 다 불성을 지녔다고 한다. 더하고 덜함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태양이 만물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처럼 신분, 능력, 부 따위의 차별은 아예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싱그럽게 살아 갈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또한 지니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스로 일조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소유, 내 생각, 내 명예, 내 가치, 내 사람, 내 자존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 세상 잘 살아 갈 수 있다고 믿어 더욱 내것, 네것에 연연한다.

이 사람들은 '내것'이라는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벽이 높으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한다. 벽이 높으면 시원한 솔바람을 쏘일 수 없다. 고로 그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삶은 옹졸하고 답답하고 춥기 마련이다.

그걸 아늑하고 따뜻하다 여길지 모르겠으나 밝은 태양, 시원한 솔바람에 비할 게 못 된다. 방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넓은 들판의 맛을 알 수 있겠는가.

디오게네스는 대왕이 제안하는 세상의 온갖 영화 대신에 햇볕을 요구했다. 우리들도 남이 햇빛을 가리면 송사를 벌여서라도 일조권을 되찾으려 든다.

그러면서 한편 자신의 손으로 벽을 쌓아 그곳에 갇히고 싶어 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불법은 들판의 시원한 맛을 보여 준다. 삶을 싱그럽게 엮어 갈 길을 일러 준다. 누구에게나 그 길은 열려 있다.

협찬 : 임 혜 경

법회 안내

성룡사(02)336-2052

일반법회 매주 토 오전8시30분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11시 오후2시

명락사(02)889-7272

정기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둘째 넷째 일 낮12시
명화회법회 매월 1일(음) 낮12시
자모회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4시
신도회법회 매주 토 오전8시

금강선원(02)553-4856

참선법회 매주 화 오후6시30분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참회기도 매월 7일(음) 오전10시
미타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조상천도재일 18일(음) 오전10시

용천사(02)642-207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칠성재일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목련불교학생법회 일 오전11시

거암정사 포교원(02)379-694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교리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법회 화 오후8시30분
건강법회 매월 마지막 일 오전10시30분

불교문학포교원(02)308-9520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문학법회 매월 넷째 일 오후2시
주부문학교실 셋째주 금 오전11시
어린이 창작교실 일 오전10시

연산정사(032)873-105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자광사(042)283-6421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6시
가족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10시30분

관음사(051)205-0069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보문청년회 첫째 넷째 일 오후2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금강경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현판식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모임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공동대표 월주)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삼각동 사무실에서 현판식 및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강원룡(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 이세중(전 대한변협회장)등 종교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소비자 · 사회복지위 현판 기념법회

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는 지난 18일 총지종 본사 총지사 서원당에서 소비자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 현판기념법회 및 세미나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종단 총무원장을 비롯 사회복지 및 소비자관련 담당자, 재가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각스님(중앙승가대교수)이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강연을 했다.



제8회 영산재 시연 평가회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는 지난 1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8회 영산재 시연 평가회를 가졌다. 송암 벽응 일응스님등 인간문화재 스님들과 대운 환월 혜경스님등 보존회 스님 2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도량장엄, 시연행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CD작업 추진등 영산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포교 '선재연구모임' 창립

청소년 포교를 전담하게 될 선재연구모임(회장 법명)이 지난 13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출범했다. 석주스님, 황학현회장(한국불교교육원), 법명스님(경주향림사 주지), 유지선씨(선재마을지도법사), 유정길법사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지침서인 월간 '선재' 창간식도 함께 치뤄졌다.

26년만에 일시귀국 美한국사 주지 고성 스님



워싱톤에 선종대학 설립…마약퇴치운동도

지난 70년 미국에 건너가 메릴랜드주립대학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강의와 한국사찰운영으로 미국 현지 포교를 하고 있는 고성스님(한국사 주지)이 26년만에 잠시 고국에 들렀다.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보금자리라 생각해 그동안 한국에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사이신 경보스님의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스님이 처음부터 미국포교를 뜻했던 것은 아니다. 워싱톤 근교에 있었던 월드젠센터를 맡으라는 경보스님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무작정 시작했어요. 먼저 대학을 찾아가 동양철학을 강의할테니 자리를 달라고 대뜸 덤벼들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 전 부산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고성스님은 한국선을 강의하면 자신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72년 콜롬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곧장 리하이 유니버시티에서 심리학과 전임강사를 시작했다.

현재 고성스님은 코뮤니티 칼리지, 아메리카 유니버시티, 메릴랜드주립대학에서 동양철학과 한국선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사내에도 아메리칸 젠 칼리지(선종대학)를 설립해 불교와 선을 전파하고 있다. 선종대학은 79년 정식학교로 인가받아 매학기 50여명의 학생들이 동양철학 학점을 취득하고 있다. 또 한국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도 운영한다.

마약퇴치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마약을 복용하는 청소년들과 일일이 상담하고 부모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들 부모의 도움이 78년 설립한 한국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국사에는 매주 법회마다 1백여명의 미국인들이 참석한다. 사미계를 받은 미국인 제자만도 50명에 이른다. 그들이 삭발염의하고 독신인 것은 아니지만 스님과 다름없이 철저한 수행과 계행을 실천하며, 우리나라의 법사처럼 신도교육과 포교를 담당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교차로

파계사서 '근본불교' 특강



호진스님(동국대학교 교수)은 22·23일 양일간 팔공산 파계사 영산율원(원장 철우)에서 근본불교에 대해 특강했다.

종교인 국토순례 참가차 도일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은 오는 31일까지 일본에서 진행되는 세계평화 종교인 국토순례 행진에 참가한다.

태백 통리초등학생 서울 초청

성덕스님(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은 지난 23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태백 통리초등학교 5학년 전원 84명을 초청해 서울 견학을 실시했다.

지종스님 초청 대법회

인경스님(천불암 주지)은 지난 20일 불갑사 조실 지종스님을 초청,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상



진홍섭씨(문화재보호재단 비상임이사)는 지난 12일 추천대상 저서인 〈한국의 석조미술〉 〈한국미술사자료집성〉을 통해 고고학·미술사 연구에 지대한 업적을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제4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9월17일 오후2시.

도의회 무소속동우회장 피선



선진규법사(봉화청소년수련원 원장)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무소속동우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선 회장은 "무소속의원들의 능력계발을 위해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어 의원신분에 맞는 이론무장과 단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민상 수상



김홍국씨(가수)는 지난 15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거행된 대한민국 자랑스런 한국인 상 표창위원회로부터 자랑스런 서울특별시민상을 수상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일 배일집 김명덕 이은하 등 연예인들과 함께 응원단을 구성, 애틀란타 올림픽 현장으로 출국했다.

소년 교도생위한 생일법회

정판수씨(대한불과회장)는 오는 25일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교도생들의 생일축하를 위한 법회를 봉행한다. (0417)552-6983

천불동 실상사서 수련대회

박수호씨(천리안 불교동호회 시샵)는 지난 12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실상사에서 천불동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박씨는 데이콤동호회지원팀으로부터 수련회 경비지원금 15만원을 받았다.

인사

조계종 △기획실 기획국장 황면스님 △호법부 조사국장 도영스님 △상임감찰 진효스님

게시판

▲여름불교학교=도선사(주지 동광)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어린이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한다. (02)993-3161

▲하계신행출가=봉선사(주지 운경)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18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계신행출가'를 마련했다. (0346)553-7005

▲어린이집 교사모집=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한다. 모집내용은 시설장 1명, 교사 5명 (032)325-2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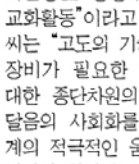
▲수화·점자강좌=원심회(회장 덕신)는 오는 8월19일 점자 및 수화기초강좌를 개강한다. (02)720-4528

▲불교강좌=금강불교학교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11월24일까지 4개월과정의 제4기 불교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032)523-9911

▲후원자모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무의탁독거노인중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하는 도시락배달 사업의 후원자를 모집한다. 1구좌 1만원. (02)852-0525

▲불교문화유적답사=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은 오는 28일 제25차 불교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한다. 출발은 오전8시 무등경기장 주차장. (062)228-9098

"예절·자연친화 교육"



청암스님(금하선원 주지)은 24시간 청소년과 함께하는 스님으로 청소년 포교분야에선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은 요즘 한문교실(7/18~8/20) 청소년농촌자연학습(8/8~8/9) 역사탐방(8월 셋째주 중)등 여름방학동안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에 하루해가 짧을 지경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입니다. 민족의 앞날을 짊어질 교육이 중차대하기에 앞장섰습니다"고 말하는 스님은 "이번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에게 예절교육 및 자연친화 방법등을 중심적으로 가르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원사 복원 발굴 2억2천만원 지원

최기선 인천시장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팔만대장경을 제작했던 곳으로 알려진 강화 선원사 복원작업이 인천시에 의해 추진된다. 최기선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15일 교계기자들과 만나 "민족정기를 지켜온 선원사의 발굴 복원을



중요사안으로 판단,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선원사에서 조판된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고려할때 선원사지의 발굴 복원은 "선조들의 호국의지와 인쇄문화 등 당시의 시대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며 "명확한 고증자료를 확보, 관계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발굴 복원에 필요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2억2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곧바로 발굴조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복원사업은 발굴결과에 따라 불교계,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인명구조도 중생교화 활동"

해난구조 봉사단 **신무영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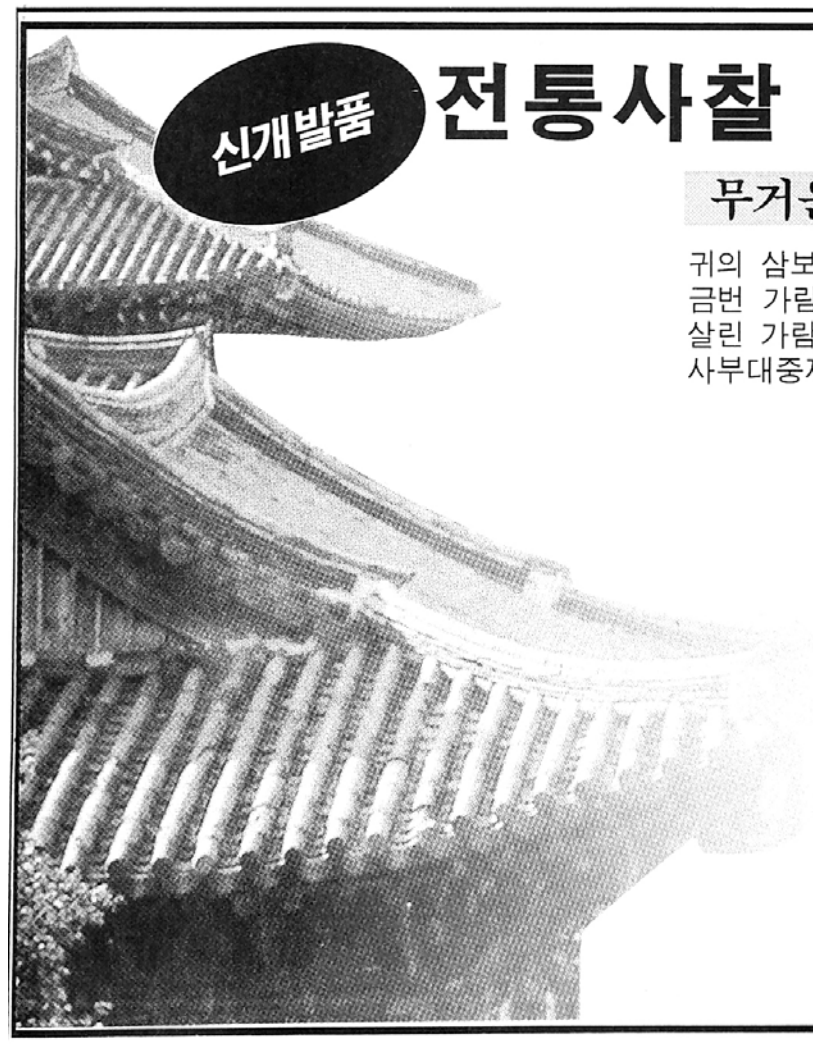
지난 13일 발대식을 가진 해난구조자원봉사단의 회장 신무영씨(33).

"해난구조활동이나 환경정화운동도 중생구제를 위한 교화활동"이라고 말하는 신씨는 "고도의 기술과 값비싼 장비가 필요한 해난구조에 대한 종단차원의 관심은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라며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뿌듯해 했다.

서해훼리호사건 당시 구조활동을 펴기도했던 신씨는 "해난구조봉사단이 제 구실을 하기위해서는 조직정비와 장비구축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스쿠바기술만 있을뿐 인명구조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봉사자들이 사고현장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28일 양일간 경남 진해시 초리도에서 인명구조 및 소생교육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씨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본부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02-723-5101)에 있다.

도필선 기자



신개발품

전통사찰 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 銅기와

무거운 흙기와에서 천년가람을 가람동기와가 보호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불철주야 불음을 전하시는 스님들께 합장 향배 올립니다.
금번 가람 동기와에서는 다년간의 기술개발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전통사찰지붕의 미를 되살린 가람 동기와 신개발품을 생산하여 시공 A/S를 책임지고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제위의 관심있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니다.

불기 2540년 가람동기와 대표 이주영 합장

가람동기와의 장점과 특징

1.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없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수 있게 설계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3.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30장씩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리성은 기본이고 *평당 중량이 45kg으로 (흙기와 680kg, 청기와 550kg)* 가람의 변형을 막을수 있습니다.
4. 동기와의 색상변화
동기와는 다른 금속에서 볼수 없는 특유의 색상변화를 일으켜 최초의 적동색에서 갈색→ 암갈색 →흑갈색→ 녹청색으로 변하여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주게 됩니다.
5.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 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가람동기와 설계. 제작. 시공단계

동기와 제작 → 시공설계 → 직접시공 → 시공감리 → 하자보수 및 10년간 A/S

가람동기와에서는 전부분 공정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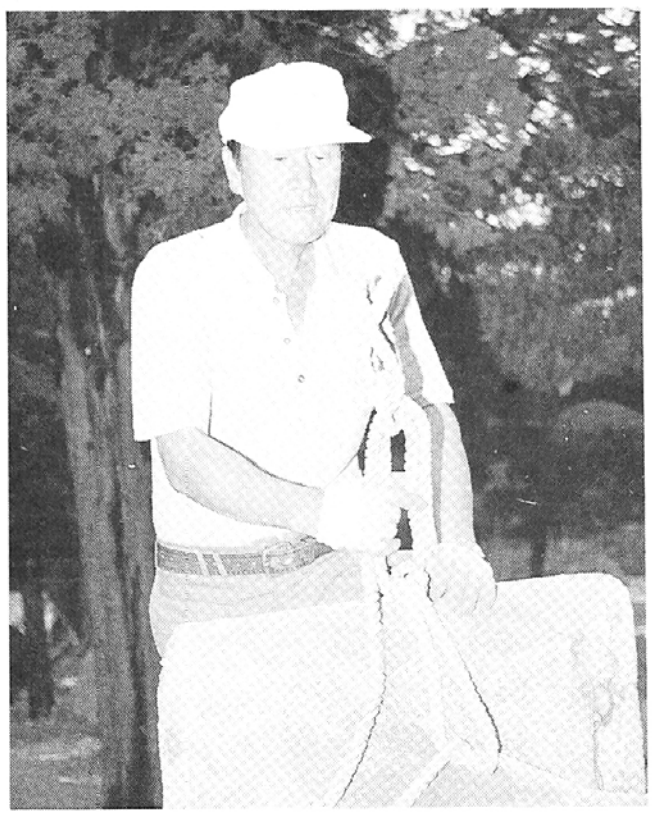
동기와 불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 720-5121
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4-40 청송B/D 202호
가람동기와 02)720-5121

"본디 모습 그대로 후손들에게…"

산문밖의 禪

문화재수리(드잡이) 홍정수 씨



작업 시작하면 묵언삼매…"완벽하게 드잡아 올리자"

드잡이로 시공 넘나들기 37년
신라인도 되고 고려인도 되어
탑·당간등 복원 '마술손'

들어올려 바로잡는다는 '드잡이'는 기울어 가는 문화유산을 본래의 모습대로 반듯하게 교정해 놓는 문화재 수리공을 일컫는 말이다.

문화재분야도 과학화·기계화되면서 드잡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 문화재에는 드잡이들의 손맛이 어울린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창출해낸 문화유산들을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드잡이 홍정수씨(56).

옛장인 혼 절로 느껴

"나에게는 전국이 수행도량이고, 문화유산들이 화두꺼리입니다. 신라 때의 탑을 만나면 신라인으로 돌아가 화두를 풀어야하고 고려의 탑을 만나면 고려인으로 돌아가 화두를 풀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간의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시공을 초월한 수행자에 버금가는 자세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럴 때도든 작업이 순조롭게 됩니다."

그가 복원한 탑들은 때론 그 자리에 본래의 모습대로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때론 옮겨진 것 같으면서도 본래의 모습 그대로 여여(如如)하다. 이처럼 최소한의 상처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본디 모습으로 복구하는 일은 드잡이들이 풀어야 할 화두인 것이다.

홍정수씨가 37년간 하루를 멀다하고 전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쓰러져가거나 허물어져가는 탑, 당간 등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해체 복원해 오고 있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옛 장인들의 혼이 젖어있기 때문이다.

"오랜세월 갖은 풍상을 겪어온 문화유산들을 본래의 모습대로 들어올려 곧추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불사는 아닙니다. 수천여년동안 면면히 전해져 오는 문화재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큰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상처를 최소화하고 곧추세워 놓는다는 것은 후손으로서 부여받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처럼 홍정수씨가 전국의 산과 계곡 들판을 만행(?)하며 드잡이 생활만을 고집해온 것에는 남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문화재들을 하나씩 해체 복원해 오는 동안 어느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선조들의 장인정신과 우리의 것에 대한 우수함과 신비스러움에 길들여지고 매료됐기 때문이다.

"드잡아 올린 것이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귀신같이' 원형그대로의 모습으로 재복원될 때의 환희심은 어떤 문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보수작업하기전 문화재의 건립연대, 지형의 특성, 돌의 재질, 부식상태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 가능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돌덩어리와 씨름하며 거칠어지고 굳은살이 박힌 홍정수씨의 손에서는 우리문화의 정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검게 그을려 우직하면서도 강렬한 그의 손이 문화재들을 다룰 때면 미술손이 된다. 한마디로 그의 작업과정은 '대수술'을 방불케한다.

홍정수씨는 남대문 시장에서 어렵사리 피복장사를 하던 시절, 매부 김천석씨가 이끌어 경험한번 없던 문화재 보수공사에 '십장직'을 맡으면서 드잡이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보1호 남대문의 보수공사에 동참한 것이 그의 잊을 수 없는 처녀작이다. 그 뒤로 충무 세병관이며 석굴암, 불국사, 금마왕궁탑 등 근세에 진행된 웬만한 문화재의 보수작업에 빠져 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인적이 없는 산골짜기에 버려진 채 묵묵히 역사의 뒤안길에서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온갖 풍상을 감내해야 했던 탑들만도 백여기 넘게 다시 세웠다. 이런 문화재들은 홍정수씨의 손을 만나면 '흔들림 없는' 유산으로 새로 태어나 또다른 후손들 앞에 당당한 모습을 드러낸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우리 드잡이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요즘 삼층석탑정도 드잡아 올리는 것은 아이들 장난감 다루듯 하지요. 크레인이란 기계가 생겨나 어떤 육중한 무게도 단숨에 들어올리고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던 공사도 1주일이면 거뜬히 해치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이 길없는 산중이나 높은 산사에 주로 자리하기 마련이어서 이러한 현대장비가 무용지물이 될때가 대부분이다.

석조문화재에 새생명

그럴적이면 홍정수씨는 40년 가까이 사용했던 원시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1백킬로그램에 가까운 돌로 만들어진 '가꾸라'는 연자방아처럼 생겨 십톤 이상의 무게를 끄떡없이 들어올린다. 게다가 로프, 도르레 등 기본적인 연장만도 한짐이 넘을 정도다. 이렇게 모든 연장의 준비가 완료돼면 홍씨는 본격적인 작업에 몰입한다.

그는 먼저 무너질 것에 대비해 사방에 나무를 맞대어 놓고 선조들에 대한 감사와 원만한 불사회향을 위한 합장례를 올린다. 그리고 탑을 한층한층 해체할 때마다 '각목자루'를 바치고 '가새'도 설치한다. 또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마당맥질을 해놓고 없어진 부위는 새 돌로 맞춰 넣는다.

"똑같은 화강석이라도 철분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세밀한 검사끝에 본래의 재질과 가장 유사한 석재를 사용하는 것이 문화재 보수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재라도 이끼낀 돌과 같은 질감으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이러한 드잡이 기법에 대한 문헌한장 남아 있는 것이 없어 드잡이들의 작업과정은 매사 신중하고 철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행여 줄이라도 끊어지면 수백년, 수천년된 문화재가 한순간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홍정수씨는 작업을 시작하면 회향할 때까지 묵언정진하는 수행자처럼 한마디 말도없이 오직 문화재들과 소리없는 대화를 하면서 삼매의 세계에 빠져든다.

드잡이 해놓은 문화재들이 다시는 후손들의 손을 필요로 하지않을 만큼 다져 놓아야 한다는 것이 드잡이 홍정수씨의 철칙이다.

김중근 기자

희노애락을 버리면 무엇이 남는지

문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마다 각자의 교육정도, 환경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 진실된게 없으니 그걸 다 버림으로써 평화를 찾고 참나를 발견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중생들이 생의 희노애락에서 벗어난다면 남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동기·캐니다 뱅쿠버〉

답 남아있지 않으면서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보세요. 여여하게 말하고 여여하게 움직이지요? 길을 갈 때에 발자취를 짊어지고 다니지 않지요? 놓아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함이 없이 그냥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으니 무엇을 걱정하시렵니까? 그냥 여여하게 농인채로 돌아가고 있을뿐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다, 무엇이 남느냐, 남는게 없다는 말이 필요없습니다.

삶이 그런줄 알고 그렇게 실천하신다면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처사님이 짜장면 맛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합시다. 내가 짜장면의 맛이 어떻더라 하고 얘기한다면 처사님은 짜장면이 뭔데? 하실 것이고 한번 먹어보아야지 할겁니다.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나서야 그 맛을 알 것이고 또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남느냐고 궁금해하기 이전에 짜장면을 직접 먹어보고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희심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다보면 묘법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또 환희심이 넘치는데 이 환희심을 지속적으로 평생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요?

〈채선희·대구 달성군 논공면〉

답 하긴 묘법이라면 묘법이지만 그 또한 그 사람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지요. 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묘법입니까? 묘법이니 선반 위에 올려 놓으시겠어요 꼭꼭 싸서 숨겨 놓으시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묘법도 있습니다. 내가 없어서 법을 대하지 않는다면 나쁜 일, 좋은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법이요 각자의 법입니다. 그대로 생활의 법이구요.

또 환희심을 늘 간직하고 싶다하시는데 물건도 아니고 어쩌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맛을 보고나서 그 맛을 간직합니까?

저 호수의 물이 때로는 얼어붙기도 하고 때로는 물결치기도 하는데 얼어붙었을 때가 맞느냐 물결칠 때가 맞느냐 하시겠습니까? 물결도 맞고 얼음도 맞지요. 호수의 물이 잔잔하기만 하다면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은 산소가 부족해서 애를 먹는데 파도가 치고 들끓으면 바닥 물까지 산소 공급이 잘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사는 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이기에 파도가 있고 얼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치를 알게되지 않습니까. 생활하는 가운데 환희심 넘치는 것만 바라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도리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떤 고난이 오든 싫어하지 말고 내 영원한 친구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한다고 믿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연·주인공에 대해 알고싶어요

문 저는 단학을 공부하다가 불교와 인연이 되었습니다만 불교의 가르침도 하나의 고달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가지 여쭙는다면 인연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또 무엇입니까?

〈진종문·인천 부평구 구산동〉

답 불교가 국한된 종교인줄 아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불'하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함이고 '교'하면 나툼의 도리를 가르친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국한된 그런 용어가 아니라 진리 바로 그것이지요.

또 인연이 뭐냐고 간단히 물었으니 간단히 대답하지요. 눈으로 보는데 귀도 한몫 거들었다면 눈과 귀가 인연이지요.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인연입니다. 또 내가 가끔 비행기 프로펠라에 빗대어 말합니다만 프로펠라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을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산다 죽는다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그립니다. 가을에 잎 떨어진다고 그 나무를 죽었다고 하겠습니까? 가지도 죽고 뿌리도 죽었다고 하지 않지요. 뿌리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마음을 내서 질문을 하고 연방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용돌이처럼요. 그러니 여기에 끄달리고 저기에 끄달리며 잘잘못 따질게 뭡니까?

인간의 뿌리는 체가 없이 공했기에 달리 어디에 존재하는게 아니라 그대로 불·법·승 삼보요 한 생각에 문수·보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공'자 주인공 해도 되고 백지라 해도 좋고 이름을 뭐라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뿌리로 돌아가고 백지 속으로 뛰어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고 맡기는 도리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본래 공하여서 체가 없다는데 개입할 내가 무엇이더냐 하는 배짱으로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자유인이요 백지에 연필로 쓰고싶은대로 쓸수 있게 됩니다.

지 상 상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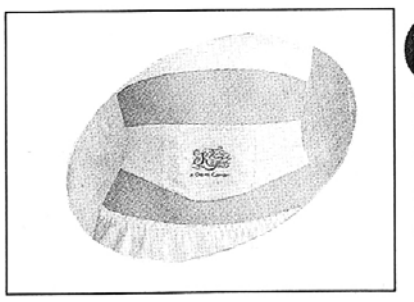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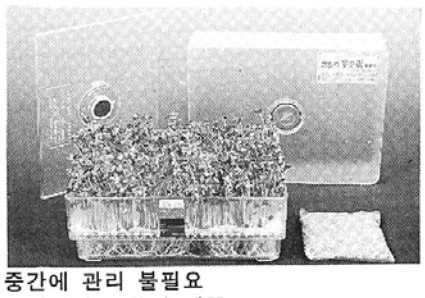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수입 콩나물 콩을 의식한 농민들이 지난해 콩을 많이 심지 않은 관계로 지금 콩구하기가 어렵고 콩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이럴 때 우리집 안방의 주말농장, 무순이를 길러드십시요

집에서 손쉽게 길러 먹을 수 있는 실용신안권 17686, 25863호

한민족 무순이 재배기



■ 1분간 안치고
3~4일 기다리면
살아있는 비타민 A, B, C
무순이 탄생

◆중간에 관리 불필요
◆재배후에도 물이 깨끗
◆무동력 무고장 평생사용
◆모든 씨앗 재배 가능

●무순이 영양가 분석표●

종 류	비타민A (IU)	비타민B (mg)	비타민C (mg)	카로틴 (ug)	칼 슘 (mg)	인 (mg)	철 (mg)
무순이	2,000	0.25	70	1,700	140	65	1.2
밀 감	40	0.02	50	72	14	12	0.4
오 이	33	0.02	15	60	19	27	0.3
토마토	130	0.03	20	240	3	18	0.2
양배추	33	0.05	50	60	45	22	0.4

(과학기술원 지원조사회 분석성분표에 의한 발췌)

무순이용 무우씨앗 책임공급 - 1년치 14,000원
발아 불량시 100% 환불

가격 재배기 + 무우씨앗(1년치) = 47,000원 → 특별할인 43,000원
전화 신청하시면 바로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농협 123-02-177220 정락훈
먹는법 ■ 된장이나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거나
■ 샐러드, 햄버거, 비빔밥, 비빔국수, 부페식등 온갖 요리에 생채로
■ 식당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자매품 콩나물 전용재배기 A형 (28,000원) B형 (38,000원)도 있습니다.

우리 콩나물 살리기 운동본부
TEL: (0331)293-2280(代)
FAX: (0331)293-5944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왕림리 388

부다피아 사이트여행



로터스 불교예술화랑

불교예술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사이버 화랑이 인터넷 상에서 불교예술에 관심을 갖는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다.

'로터스불교예술화랑'은 △불화 △불상 △소품 등의 메뉴를 마련해 각각 8~10개에 이르는 그래픽를 제공해 주는 한편 각 방문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을 전시할 의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전시가 가능해 불교예술의 자유로운 교류 또한 유도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서비스 중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3차원 입체영상. 3차원 그래픽 서비스는 불교관련 사이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로 방문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 '로터스불교예술화랑'이 제공하는 모든 그래픽을 입체적인 형상으로 볼 수 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래픽은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픽으로 보는 고대 불교예술 진수

예술품의 연대까지도 세밀히 기재해 주고 있어 불교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여준다.

이중에서 실크로드에서 발견된 '부처님 입상'(AC 630년)과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부처님 불화'(AC 690년) 등이 고대 불교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볼거리.

이외에도 △불교예술 관련 논문 △예술품 등록 메뉴를 통해

사이트 주소: http://www.lotus-studio.com/dama-art.htm

불교무형유산 문화재지정 폭 넓혀야

최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까지 잡음이 이는 등 문화재지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불교계는 이번 기회에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불교문화 가운데 맥이 끊길 우려가 있는 종목들을 새로 지정,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히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존·관리돼야 하는 무형의 유산들이 불교라는 종교색 때문에 지정돼 있지 못하거나 세부적으로 분류돼야 할 것도 큰 덩어리로 묶여 체계적인 전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불교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사진은 불상 복장의식을 봉행하고 있는 장면.

승무·영산재·단청장 3종목만 제도적 보존
사찰음식·탑돌이·복장의식등 맥 끊길 위기

현재 문화재관리국이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는 모두 98종으로 1백74명의 기능보유자와 51개의 기능보유단체가 보존·전승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중 불교관련 중요무형문화재로는 승무(27호)와 영산재(50호), 단청장(48호) 3종목. 승무는 이매방씨가, 영산재는 송암·벽응·일응·지광스님(이상 태고종)이, 단청장에는 만봉·혜각·석정스님 등 모두 8명이 예·기능보유자로 지정돼 있으며, 영산재의 경우 태고종 봉원사 영산재보존회가 기능보유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보유자들과 불교계 문화재전문가들은 불교관련 종목을 세분화해 올바른 전승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례로 영산재의 경우 범패와 법무, 장엄 등 세분화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놓고 있어 제대로 된 기능전수가 쉽지 않은 상태다. 단청장 또한 불화와 조각, 단청 등 최소한 세분야만으로라도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곡, 관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곡 중의 하나인 범패의 경우 영산재를 비롯해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수륙재(水陸齋) 등 다섯가지 재가 있으나 영산재 하나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통한 세부적 지정 외에 다양한 종류의 불교전통문화를 관리·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여론도 높다.

불상복장의식의 경우 수진스님(담양 용화사)에 의해 유일하게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전수자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찰음식의 경우도 마찬가지. 음식을 하나의 장르로 가지고 있는 종교는 불교가 유일하며, 사찰음식과 궁중음식이 서로 융합해 발전해 왔음에도 궁중음식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높다.

불교의식이면서도 민속놀이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돼 있는 탑돌이의 경우는 본래의 의식이 변형되면서 지금은 제대로 된 의식장면을 보기 힘든 상태다.

오래전부터 탑돌이의식 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로 보존을 추진해 온 홍윤식박사(동국대 박물관장)는 "탑을 돌며 탑돌이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화에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 둘이 조화를 이루며 이어질때 살아움직이는 불교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재위원인 범하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장)은 "승복, 지화(紙花) 등 불교 전통문화 각 부문에 대한 지속적 연구는 물론 기능보유자를 찾아 체계적 전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美 스포츠계 '명상' 바람

禪 프로그램 활용 잠재력 개발·정신집중 훈련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애틀랜타 올림픽의 열기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미국 스포츠계에 선(禪)을 이용한 명상훈련법이 선수들의 정신력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 NBA 왕좌에 등극한 시카고 불스팀의 감독 필 잭슨은 선수들을 지도할 때 불교의 선(禪)에 기초해 선수들을 훈련시킨다. 그는 작년 12월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내부로 눈을 돌리는 선에서 제일 크게 강조하는 것은 화두를 잡시라도 놓지 않는 집중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선수들에게 경기장에서건 일상에서건 경기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집중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경기장에서 선수에게 필요한 것을 꼽는다면 체력·기술·경기규칙 등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여러 스포츠 심리학자의 조사 결과 '잠재력' 또한 경기에서 승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자 마이클 노박씨가 미국 선수들에게 경기에 몰입한 순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그들의 육체·힘·기술이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리학적인 신경작용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정신작용이 필요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때 선수들은 새로운 자신을 보고 잠재능력을 일깨워 승리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명상'이며, 주로 운동선수의 심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정신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나브라틸로바(테니스) 짐 코너(데니스) 존 스몰츠(야구) 단 잔슨(스케이팅) 등과 같은 미국의 스포츠 유명인사들 역시 개인적으로 스포츠 심리학자의 조언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단지 이기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경기장에 임할 수는 없다"는 운동선수와 스포츠 심리학자 외에도 "스포츠 심리학은 심리학의 새로운 영역일 뿐으로 경기 수행능력 향상에만 적용시켜야 한다"며 반박하는 회의론자도 스포츠계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자료는 'http://louisville.edu/~rabruc01/zen.html' 및 삼발라선 95/5)

원효 '번뇌이론'과 정신의학 상통

이죽내 박사 二障義 분석심리학적 조명

현직 의사가 원효스님의 번뇌이론(煩惱理論)을 인간심성에 기초하고 있는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조명해 관심을 끈다.

이죽내 박사(경북대 의과대 교수)는 가산학보 5집에 게재한 논문 '원효의 번뇌이론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에서 원효스님의 번뇌이론서라 할 만한 이장의(二障義)를 세부적으로 살피면서 원효스님의 번뇌이론과 분석심리학의 정신병리론은 의미상의 근본적 차이가 없으며 이론 상호간 의미의 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박사가 정의한 원효의 번뇌이론은 근본무명(根本無明·모든 번뇌의 근본인 깨닫지 못한 마음)에 의해 염심(染心·깨닫지 못해 그 본심이 가리워진 마음)이 생겨나고 그 염심에 의해 다시 집착심이 일어나며 그 집착심에 의해 번뇌, 즉 장애(障碍)가 발생한다는 것. 이 정의를 바탕으로 분석심리학적 측면에서 이박사는 장애(障碍)를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自己'를 덮어 가려서 자기실현을 가로막고, 따라서 착각적 현실을 드러내는 무의식적 과정으로 보았다.

집(執)은 아집과 법집(法執)이 있는데 이들은 실상(實相)의 무지로 인한 실재에 집착해 탐욕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마치 自我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이 외계의 대상에 전이(轉移)되어 나타난 현상을 마치 실제적 대상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염심은 분석심리학의 自我의 기능과 작용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본무명은 '하나의 법'인 진여(眞如)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각(不覺) 혹은 근원적 무지로, 인간의 본성인 '자기'를 은폐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선험적 집단무의식성(集團無意識性)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보존 국제회의 열린다

10월22일~25일 서울서 15개국 전문가 의견교환

무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문화재관리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타워호텔에서 15개국 25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국제보급을 위한 국제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유럽·아프리카 4개국과 아·태지역 10여개국 등이 참석하게 될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측이 제안한 인간문화재사업을 유네스코측이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각 국가의 고위급 문화정책담당자들과 유네스코 본부측의 문화담당국장이 직접 참여해 무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무형문화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루마니아 필리핀 태국 프랑스 등 6개국 정도다.

고궁문화재 청소년학교 서울 5궁서 8월23일까지

문화재관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7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서울에 있는 5대궁에서 '고궁문화재 청소년 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궁의 연혁, 제도, 조경, 고건축, 종묘제례, 궁중생활상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강의한다. (02)318-7461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백양사

명부전

地藏大聖誓願力
(지장대성서원력)
恒沙衆生出苦海
(항사중생출고해)
敎化厭苦思安樂
(교화염고사안락)
故現閻羅天子形
(고현염라천자형)
悲增普化示威靈
(비증보화시위령)
六道輪廻不暫停
(육도윤회불잠정)

지장보살의 크신 원력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 벗겨 줌이여
세간고통 뛰어넘어 편안하게 하시려고
어느 때는 염라모습 어느 곳엔 자비보살
크나큰 영험으로 가지가지로 몸 나퉈
육도 중생 교화함을 잠시라도 쉬지 않네

해설 백양사 명부전의 주련은 지장보살의 위신력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지옥중생을 제도하는 대표적인 보살인 지장보살의 대원력은 중생들의 윤회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윤회는 고통이다. 우리는 갖가지 업연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굴레를 벗기위해 불보살의 도를 닦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근기로는 윤회를 벗어나는 대도에 이르기 쉽지 않다. 그것이 쉽지 않은데서 지장보살의 원력이 위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련의 내용에서는 지장보살이 지옥계의 중생과 현생의 중생 모두를 위하여 쉼없는 교화행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염라의 모습과 자비보살의 모습을 함께 갖추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나투어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육도의 중생은 언제나 지장보살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음을 마지막 행에서 알려주고 있다. 육도란 중생이 윤회하는 과정에 갈 수 있는 여섯가지의 길을 말한다. 그것은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도등이다. 육도윤회란 말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윤회굴레 벗게하는 지장보살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分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확실한 부동산 최고의 투자대상!

"동대문 시장 內 전문도매상가"

SAMWOO 삼우텍스프라자



본 회사는 대한민국 최고 상가인 아트프라자를 성공시킨 노하우를 가지고 원단, 부자재 상가중 초일류 1등으로 **삼우텍스**를 개발합니다.

★ 투자에 관심있으신 분과 함께 오셔서 확인하십시오.
★ 노후대책으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마지막 기회!
※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실투자액 4000만원선 (무담보 융자 3000만)"
→ 투자 1년 후 2-3억 이상 형성
보 1억여원 월 250~350만

안전성과 최대 수익성을 보장받는 6가지 핫-포인트!

1. 각종 세금 면세의 장점
2. 최적의 대중 교통 수단
(지하철 1,6호선(동묘역) 환승 본건물 직통 연결 예정)
3. 40년만에 최초 국내 독점개발 시스템
(최첨단 물류시스템 즉 원가 경기절감의 극대 효과)
4. 어떤 부동산보다 단기의 최고 수익률
(투자액의 20배 수익 3~5년 기점 형성 예상)
5. 분양가 상당 저렴
(주변 상가의 50%의 이하)
6. 완벽한 주차장 구비
(1,500대 동시주차)

투자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

❶ (주) 한국부동산 신탁 수탁관리로 안정성 보장
❷ 벽산건설 책임시공 공사 지체 보상금 제도 실시
❸ 365일 TV 융단 홍보및 이벤트 행사
❹ 조기상권 활성위해 유통 사업본부 가동
❺ 1개 점포→주변 점포의 3~4배 평수

=상담역=
☎ (02-264-3383)
개발사업부 부장 김남일

염불·주술 융합 티벳중심 발전

보르헤스의 ㉑ 불교강의

라마불교 ①



◇라마불교는 티벳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뚜렷한 사제계급을 갖고 다양한 신성(神性)을 인정한다. 윤리·도덕을 특히 강조하며 '옴마니반메훔'을 주력, 악귀를 쫓아낸다고 믿기도 한다. 사진은 전세계 사원중 가장 높은 곳(해발 5천미터)에 위치한 풍루사원.

사제계급 뚜렷…환생 인정 다신론적 사고 팽배

불교의 윤리·도덕적인 면 강조
선·악행은 사후라도 보상과 처벌
라마는 정신·세속적 권력 가져

라마불교는 대승불교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계급제도적, 제정일치적으로 특이하게 변형되어 나온 것이다. 부처님은 인도 북부와 갠지스 강변에서 가르침을 펼쳤지만, 라마불교는 티벳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14세기에 황금기를 맞았다.

라마불교를 연구한 라이스 데이비드 등 대부분의 서구학자들은 이 종교체제와 가톨릭 교회와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전생활불(轉生活佛)이라고 일컬어지는 달라이라마는 17세기 이후 티벳의 원수(元首)가 되어왔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1949년 집권한 후 티벳을 점령했다. 점령시 종교적 전통을 존중해 주겠다고 약정한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 후 티벳 고유의 문화적 체제와 관습들이 모두 뿌리 뽑혀졌다.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하자 많은 신도들이 그를 따라가서 인도의 서북부 다람살라에 티벳 망명정권을 수립했다.

소승불교에는 수도승만 있지 사제계급은 없다. 반면 라마불교에는 뚜렷한 사제계급이 있어서, 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위대한 왕)와 판첸라마(위대한 스승)는 중세 때의 가톨릭 교황들처럼 정신적인 권력과 함께 세속적인 권력도 행사한다. 주술(呪術)을 중시하는 고유신앙을 가진 티벳과 몽골인들은 사성제 같은 지고한 진리나 팔정도같은 엄격한 실천법에 쉽게 적응되기 어려웠다. 그들을 교화시키는 데에는 화려하고 복잡한 제례의식이나 번화한 염불의식 혹은 몸속 깊이 체득되어 있는 전통적 주술행위와 토착신앙을 융합한 종교형식이 필요했다. 버나드쇼는 "콩고의 토인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일은 사실상 기독교를 콩고의 토인이 믿는 민간신앙으로 바꾸는 일이 되고 만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티벳인들은 외래종교를 고유의 정신체계와 융합시켜 독특한 혼합종교를 만들어 내었다. 거기에는 대승불교에 내재해 있던 다신(多神)적 체계와 주술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공산주의가 티벳을 점령하고 억불정책을 쓰기 전까지는 불교사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아들 중의 한명을 가까운 사원으로 보냈다. 팔구세 가량의 이들 소년들 중에서 소수만이 초심자로 받아들여지고 오랜 공부와 시험뒤에 정식 승려가 된다. 대개 수도원장들은 그 지방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위있는 인물이 된다.

달라이라마가 열반에 들면, 사원 부근의 가난한 집에서 환생한다고 믿었다. 그 아이는 신탁에 의해 발견되고 법도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 가난한 집에서 환생한다는 사실은 무슨 민주적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세있는 집안으로 하여금 권좌의 계승문제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자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티벳은 원래 관음보살의 교화의 땅으로 알려져 있어서, 달라이라마는 세대를 거쳐 전생(轉生)하는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다. 옴마니반메훔(오! 연꽃 잎의 이슬이여)은 특히 달라이라마가 입적할 때 마치 연꽃잎에 맺힌 이슬이 바다로 흡수되는 것처럼 열반에 입적하는 것을 기리는 주문이다.

티벳에서는 다양한 신성(神性)이 경배된다. 여러 부처님들과 그 제자들, 보살들, 대승불교의 창시자 용수(나가르주나) 등과 함께 험악한 얼굴의 사천왕, 지옥의 왕이며 사자(死者)의 심판관인 염라대왕(그의 상징은 해골과 남근(男根)이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여러 신들이 모두 경배의 대상이다.

티벳불교는 불교의 윤리 도덕적인 면을 강조한다. 선행은 사후 필히 보상을 받으며, 악행은 꼭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통불교가 자아라는 개념을 배제한 업(業)의 논리에 의지하는데 비해, 라마불교는 세대에서 세대로 윤회전생하는 개인적 자아의 영혼을 인정하는 편이다. 죽은 자는 이땅이나 아니면 육도(六道)의 어디에선가 환생한다는 것이다.

마귀들은 호시탐탐 인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적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신중한 태도다. 이런 믿음하에 부적은 승려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환자들을 위해서는 승려들이 독경을 통한 정신치료법을 실시하였다. 악귀를 쫓고, 병을 치료하며, 극락정토로 인도한다고 믿는 주문을 수시로 암송하는 일이 민간에서 널리 유형하였다. 가장 효험이 있다고 믿은 주문은 역시 옴마니반메훔이었다.

만트라(mantra)는 산스크리트어로 '문자' '언어'의 뜻이다. 한자로는 '진언(眞言)'이라고 음역하며, 밀교에서는 '다라니(陀羅尼, dharani)'라고도 부른다. 만트라는 단순한 언어의 뜻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 말은 다른 나라에서도 번역되지 않고 원어발음 그대로 따라한다. 유대 신비주의 알파인 카발라에서도 성경의 글자에는 창조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해로운 말, 불길한 말, 싸움을 불러오는 말, 불같이 뜨거운 말, 행운을 불러오는 말, 친절한 말 등 힘을 내재하고 있는 말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잘 배합하면 효능은 더 증대된다. 각각의 마귀마다 치명적인 말이 있고 승려들은 그 주문들을 알고 있다.

만트라는 음송되지만, 글이나 문양으로 쓰여져서 관상(觀想)되기도 한다. 숙소나 사원의 지붕을 장식하는 깃발에 그려지기도 하고, 옷이나 부적에 쓰여지기도 한다. 환자는 식이요법 중 만트라가 쓰인 종이를 먹기도 한다.

만트라를 독창(讀唱)하거나 관상하면 복을 쌓고 해탈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물론 사원에 시주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을 병행해야 한다. 부자들은 대개 보석을 시주하고, 가난한 자들은 버터를 시주한다.

라마의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정신적 권한과 세속적 권한을 모두 가진다. 국가의 모든 산물, 사형을 포함한 모든 관결권 그리고 신도의 현세적 운명뿐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결정한다.

라마불교는 임종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죽음의 시간이 임박하면 승려는 죽음의 왕국을 여행하는 여러가지 지침이 담겨있는 경을 낭송한다. 화장이나 매장이 끝난 뒤에도 독경과 장례는 계속된다. 그 기간은 49일간 지속되며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지방은 마지막에 태워진다.

육체적 죽음뒤 첫번째 바르도(bardo, 단계)는 깊은 잠의 기간으로 4일간 지속된다. 그뒤 영혼을 비추는 밝은 빛이 나타나고 그제서야 사자(死者)는 자신이 죽은 것을 안다. 만일 그가 해탈을 한 자라면 이것이 마지막 단계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이 용 자 〈화국화가〉



화폭에 담은 '미륵불' 그림수행 스승

'마음만 앞세우지 말라' 되새기며 작품생활

'서울에 가면 동국대학을 들려 봐야지.'

이번에도 이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미 군산을 떠날때부터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안가는게 더 좋을지 몰라'라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다.

나는 왜 동국대에 한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영영 지우지도 못하고 또 실행하지도 못하는가. 망설임 때문이다. 그것을 보고싶다는 욕심과 어쩌면 없어졌거나 어디 구석창고에 묻혀있어 실망과 화만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주는 망설임이다.

6·25 난리통에 나는 제주도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1일에 원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왔었다. 원주에서 남편은 농고 교사였는데 서울 용산고 교감으로 내정이 되어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새로 살림을 편지 25일 만에 전쟁이 터진 것이었다. 서울 지리도 모르는 촌 사람들이 피난 갈 궁리도 못하고 용산고 지하 보일라실 한쪽 구석에 숨어 있다가 공무원이란 신분의 특혜로 끊어지기 직전의 한강다리를 건너 제주행 배를 타게 된 것이다. 그곳에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부산으로 건너와 3년을 살았다. 남편은 천막학교에서 배고프고 헐벗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는 그림 그리는 일 보다는 먹고 사는 고민을 더 많이 했다. 그래도 54년 가을에 서울 화신백화점에서 첫 전시회를 가져 '당찬여자'란 소리도 들었었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고 전국민과 더불어 예술가들도 배가 고팠다. 그무렵부터 나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절에 다니기 시작 했는데 각박한 심정을 무척이나 포근히 어루만져 주는 곳은 절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

몇년전 새로 조성한 청동미륵대불 이전의 그 미륵대불이었다. 나는 법주사를 도착하기전에 그 꼬불꼬불한 말티재를 넘으며 "도량의 터도 좋고 유서도 깊지만 법주사는 거대한 불상이 팔상전과 알맞은 거리를 두고 서 있음으로 해서 명찰이라 할 만하다"라는 말을 들었었다.

과연 풍진속을 헤매다가 문득 일주문을 들어 선 한갓 중생의 눈과 마음을 압도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위압이 있었다. 그간 여러 절을 다녔지만 법주사만큼 두고두고 뇌리를 떠나지 않는 절은 없었다. 결국 나는 법주사를 그리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법주사는 내가 그곳에서 받은 감동대로 화선지에 지어지지는 않았다. 마음 속의 감동과 손끝의 재주에는 고뇌로 이어진 길이 있음을 알게 해 준 작품이 그 작품이었다. 말하자면 내 그림수행의 엄한 스승이었다.

5·16이 나고 몇년 후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세월의 저 편에서 내가 그린 한국화 속리산 법주사 풍경은 국전에서 입선의 기쁨을 내게 안겨 주었고 나는 그 고마운 작품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동국대에 기증을 했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조명기박사님이 당시 총장으로 계셨는데 박사님은 그 그림에 넘치는 칭찬을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었다. 그 작품은 당시 도서관 현관에 걸렸었다. 그리고 나는 한번도 그 작품을 보러 가지 못했다. 살기에도 바빴고 굳이 찾아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저 불심 약한 나에게 큰 감동을 준 미륵대불과 그림을 그리되 마음만 앞세우지 말라는 교훈늘 준 고마운 작품으로만 기억의 한켠에 밀쳐 두었던 것이다.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나는 이화여대 경영관에서 한국화 전시회를 가졌다. 이 전시회에는 제주도 풍경을 그린 작품과 도자기들을 내놓았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일흔일곱의 주름진 나이를 기쁘게 해 주었지만 그 전시회의 하루하루는 왜그리 바쁜지 동국대에 갈 틈을 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가볼까'라는 기대와 '지금 와서 뭘…'이라는 망설임 사이에서 하루하루의 바쁜 일정이 굉계가 되어 준 것 같기도 하지만 군산으로 돌아 오며 나는 생각했다.

'나의 미륵부처님은 내가 가서 보거나 안보거나 내 생활과 화폭에 언제나 계시고 그 분이 계심으로 나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작광 스님)
● 무실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마산/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02)597-7581
서울강북지회:(02)747-7033
부산지회:(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053)323-2598
대전지회:(042)222-4936
광주지회:(062)228-8544
제주지회:(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0331)291-8549
경남진주삼성지회:(0596)73-0039
경남마산지회:(0551)23-9016
경남울산지회:(0522)74-7536
창원지회:(0551)62-0076
제천단양지회:(0443)46-3023
의정부지회:(0351)873-0532
경주지회:(0561)772-3255
강릉:(0391)645-2117
거창지회: 0598-42-8534 풍양사

봉축 '96 新 금강 영험부적 호신불시계

■관세음보살님 원력으로 성불하십시오



봉축 佛紀2540년
부처님의 손에 시계바늘이 놓여 있어 시공을 초월하여 전지 만능의 조화를 부리는 호신불 시계입니다.

놀라운 신통력! 부적교환 첨단신제품

귀하의 품격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 부적버클교환용
- 오스트리아산다이아
- 1년간A/S
- 3기압 방수방충
- 고강도 크리스탈
- 18K Gold Crown
- 특수 IPG 금장도금
- 18K 금용두

138,000원 남·여한쌍

1. 소원성취 부적
바클엔 소원성취 부적을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을 이룩합니다.

2. 칠성 부적
후면엔 칠성 부적을
이 칠성부를 봉안하면 무병, 장수, 부귀영화의 부적입니다.

3. 삼재 소멸 부적
삼재소멸부를 추가제작하여
삼재가든 사람은 삼재가 끝날 때까지 몸에 지니면 삼재 액운이 물러갑니다.

금강 부적시계의 장점
- 사업번창
- 무병장수
- 운전자무사고
- 합격소원성취
- 삼재소멸
- 심신안정
- 입체재난구제
- 영험의 신비체험

남·여 1세트
특별현금가:₩138,000
할부시 계약금:₩18,000
매월 30,000원×5회
(신용카드 구입시 분할 우대)

구입문의:금강 정사 불교연합회 〈02〉252-4468(代)
서울·수도권은 즉시 배달해 드리며 지방에 계신불자님은 먼저 물품을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⑥

圓照淸淨覺相 淸淨覺相卽是心 照卽觀也
원조청정각상 청정각상즉시심 조즉관야
心卽是佛 念佛卽是觀佛 觀佛卽是觀心
심즉시불 념불즉시관불 관불즉시관심
所以說 看話頭
소이설 간화두
或者是說 看念佛是誰 就是觀心
혹자시설 간념불시수 취시관심
卽是觀照自心淸淨覺體
즉시관조자심청정각체
卽是觀照自性佛
즉시관조자성불

원만하게 맑고 깨끗한 깨달음의 자리를 비춘다 하는데 청정각상이란 곧 마음이니 비춤은 곧 관이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염불이란 곧 관불이며 관불이란 곧 관심이다.

그러기에 화두를 보라고 설한 것이다.

어떤 이는 부처를 생각하는게 누구인지 보라고 했는데 이는 관심을 말함이다.

곧 이 자심이 본래로 청정한 깨달음의 당체임을 관조함이다.

곧 자기 성품의 부처, 자성 본래불을 관조하는 것이다.

心卽性 卽覺卽佛 無有形相方所
심즉성 즉각즉불 무유형상방소
了不可得 淸淨本然 周徧法界 不出不入

석고봉조사운 학자능간개화두

다시 빈틈없이 끊이지 않게 평안하고 고요히, 담담히 공적하게 비춰보면

곧바로 오온이 다 공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공적하여 마침내 한가지 일도 없이된다.

밤 낮으로 하루종일 행주좌와가 여여부동하매 날이 가고 공력이 깊어져 견성성불케 되니 고통은 사라지고 자성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게 된다.

옛날 고봉조사가 이르기를 공부하는 이는 화두 살피기를,

如投一片瓦塊在萬丈深潭 直下落底
여투일편와괴재만장심담 직하락저
若七日不得開悟 當截取老僧頭去
약칠일부득개오 당절취로승두거
同參們 這是過來人的話
동참문 저시과래인적화
是眞語實語 不是騙人的誑語啊
시진어실어 불시편인적광어아
然而 爲什麼 現代的人 看話頭的多
연이 위십마 현대적인 간화두적다

마치 한개의 기와 쪽을 만길 깊은 못속에 던지면 곧바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같이 하되

만약 이와같이 일주일을 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마땅히 노승의 머리를 잘라가도 된다고 하였다.

동참하는 사람들이여 이 지나간 사람의 말을 참되고 실다운 말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헛소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화두를 드는 이는 많은데

而悟道的人 沒有幾個呢
이오도적인 몰유기개니
這箇由于現代的人 根器不及古人
저개유우현대적인 근기불급고인
亦由學者 對參禪看話頭的理路
역유학자 대참선간화두적리로
多是沒有摸清
다시몰유모청
有的人 東參西訪 南奔北走
유적인 동참서방 남분북주

깨닫는 사람은 적단말인가.

이는 현대인의 근기가 옛사람에 미치지 못함 때문이요

또한 학인들이 참선을 대함에 화두의 이로를 볼뿐

흔히 청정한 마음자리를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이는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여기저기 집적대며 싸돌아 다닌다.

龍眼

"육근을 다 거둬들여 한 생각 쫓으면 생각여읜 청정한 마음을 볼수 있어"

료불가득 청정본연 주편법계 불출불입
無住無來 就是本來現成的淸淨法身佛
무왕무래 취시본래현성적청정법신불
行人都攝六根 從一念始生之處看去
행인도섭육근 종일념시생지처간거
照顧此一話頭 看到離心的淸淨自心
조고차일화두 간도리심적청정자심

마음이란 곧 성품이다. 깨달음이요 부처이다. 형상과 방향 장소가 없으므로

마침내 얻을 수 없고 청정 그대로요 법계에 두루 편만하니 나옴도 아니요 들어감도 아니다.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본래부터 그렇게 드러난 청정법신불인 것이다.

수행인은 육근을 다 거둬들여 한 생각이 비롯되는 곳을 쫓아 살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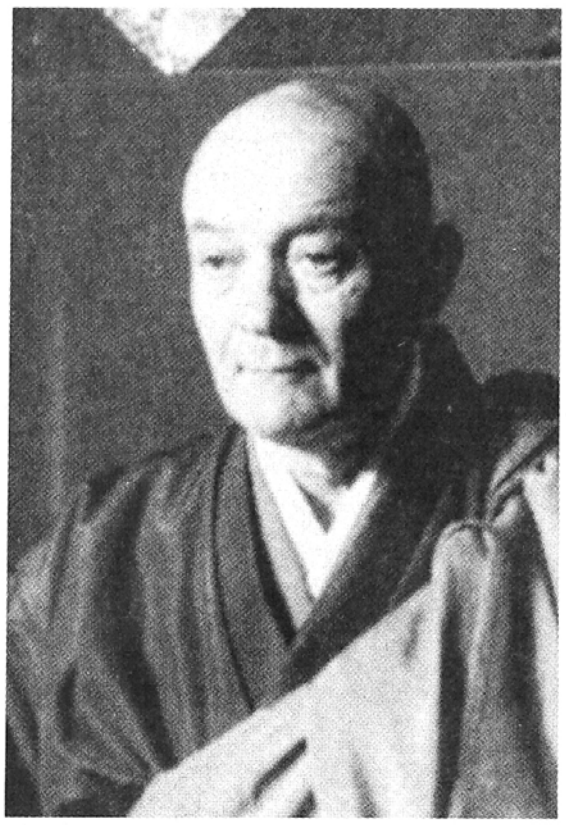
한 화두를 돌이켜 비추면 생각을 여읜 청정한 제 마음을 보기에 이른다.

再綿綿密密 恬恬淡淡 寂而照之
재면면밀밀 염염담담 적이조지
直下五蘊皆空 身心俱寂 了無一事
직하오온개공 신심구적 료무일사
從此晝夜六時 行住坐臥 如如不動
종차주야육시 행주좌와 여여부동
日久功深 見性成佛 苦厄度盡
일구공심 견성성불 고액도진
昔高峯祖師云 學者能看箇話頭

★ 여름특집

수행은 내재된 불성찾기

존 다이도 도리 〈美 뉴욕 선산사원 원장〉



불교를 배우고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행자의 마음에서 신심이 자연스럽게 넘쳐흐르는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쳐 흐른다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대상도 마음 속에 담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이러한 신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수행자는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앉아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앉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른 자세를 통해 얻은 자연스러움은 반드시 평온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처음 자세를 취하고 편안함을 느낀면서, 만약 다리가 결리는 등 육체의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연스럽고 평온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시작한 애초부터 등을 굽힌다든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리고 머리를 갸웃거리는 것은 올바르게 앉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자연스러운 자세는 반드시 곧은 자세를 요구합니다. 가슴을 지나치게 내밀어 등을 굳게 만들고 근육을 긴장시키는 등의 상태는 결코 자연스런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자세를 갖추는 동안 마음은 여러분이 지금 가꾸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 어떠한 의식 혹은 의도를 품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은 더욱 더 복잡해 지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이 혼돈스럽고 방황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다른 사실에 대한 집착과 사고의 방황일 것입니다. 망상은 망상을 낳습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야차와 같이 끊임없이 돌아 가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망상이 집착과 사고의 방황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망상과 그로인해 생겨난 집착과 사고의 방황을 자연스런 형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황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강한 신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서 신심이 자연스럽게 넘쳐흐른 상태로 다가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특별한 명상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생각의 방황을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고의 방황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생각'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명상을 시작할 때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분명 어떤 사고의 방황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생각의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물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 역시 연이어 나타난 생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그 생각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분명 사고의 방황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고의 방황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쉽게 얻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란 성공에 도달하기까지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입니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이것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행에는 성공적인 결론이란 애초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분명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는 성공과 실패에도 얽매이지 말고 나아가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패배주의자의 태도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며, 완벽한 성공은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완벽한 성공을 이루었나'고 물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노력한다면, 한편으로 여러분은 '성공'이란 단어에 대해 병적인 강박관념이 생겨나고 결국 '집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억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성공'이며 '자유'입니다. 이것은 또한 번뇌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연스런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성을 자연스러움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움이란 여러분의 심상의 자연스러움, 바로 불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명상을 통해 불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그릇된 생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불성을 깨칠 수 있기는 합니다. 자신의 불성은 바로 여러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상이 불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느순간 여러분이 불성을 보았다고 해서 명상을 그만 두겠지요. 그러나 그순간부터 여러분은 또다시 망상과 집착에 시달리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명상이란 불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가깝게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교설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지혜도 없고 집착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새겨둡시다. 수행이란 노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다리가 절려오고 등이 굳는 등 육체적인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수행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근심으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해 여러분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불성을 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래부터 공한 것이고 불성 그자체에는 어떤 고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력

· 미국에서 태어났다. 선산사원에서 일본선불교의 참선과 명상 등의 수행법과 법고치는 법, 불교식 장례법 등가 같이 불교의식을 미국인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화두를 모아 〈허공에서 만나는 화살 두 대〉등의 화두집을 발간했다.

자기를 의식하는 것마저 버려야 번뇌서 벗어나

'내가 수행하고 있다' '꼭 이루어야지' 집착·강박관념등 생각의 방황 일으켜

본 강원은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들과(전문반) 재가 불자님들의 불교공부(교양반)를 돕기 위하여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든 강원제도입니다.

봉선사 불교전문 통신강원 수 강 안 내

1. 전문반(강원코스)
- 사미과=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 사집과=도서, 절요, 서장, 선요, 대승백법명문론
- 사교과=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오가해, 원각경
- 의전과=기초의식(도량석, 종송, 예불의)
  상용의식(불공, 시식, 관욕, 대령)

2. 교양반(교양코스)
- 교리강좌=삼화표월지, 불교의 깨묵
- 경전강독=금강경강화, 운허스님의 능엄경강화
- 교양의식=삼화행도집
- 교양불교사=운허스님의 불교통사, 전등록 초

3. 수업요령
①입학금 : 3만원(재학기간 유효)
②수업료 : 각과목마다 월 2만5천원
③교재(카세트테이프)는 매월 8개씩 월초에 보내드림
④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원에 문의바람

▒ 문의처 : ☎ (0346)68-1957(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 장 金 月 雲

대 원 불 교 대 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 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 교 과 목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 Ⅰ
연구과정	2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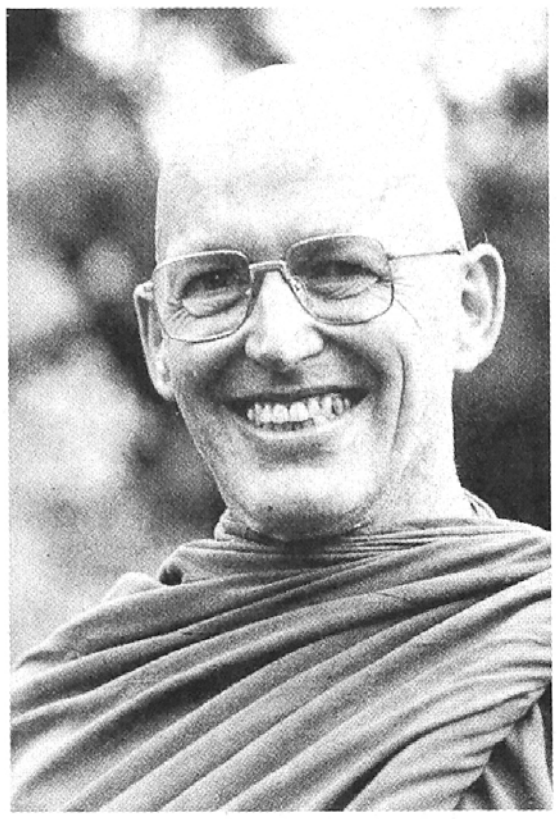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인터넷 지상법석 ★

마음가짐이 삶의질 결정

야안 슈메도 〈英 포레스트사원 부원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의 한계에서 그대로 안주한다면 분명히 그릇된 삶이며 생각입니다. 우리는 심신의 동요을 수반하는 감동과 그것에 의해 생겨난 생각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신심의 감동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네가지 실천적 원리 즉, 사성제를 가르쳤습니다. 사성제란 고(苦)·집(集)·멸(滅)·도(道)를 말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의 도리를 불건전한 생각을 마음 속에서 일으키지 말 것, 설사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여도 계속 마음에 담아두지 말 것, 올바른 생각을 마음 속에서 일으킬 것, 만약 그런 생각이 생기면 계속 마음에 담아둘 것 등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을 빌어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랑·자비·환희·평정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마음 속에 꼭 있어야 할 '숭고한 존재' 입니다. 사성제를 마음 속에 분명히 간직하고 있을 때, 지상에 불국토를 건설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늘과 땅, 불국토와 지옥을 나누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불국토와 지옥과 같은 분별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을 통해 심도있게 내면을 관조하여 분별심을 없애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를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존재하고 서로에게 신뢰를 갖는 고도의 정신적 사회를 구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간직한 생각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여기에 신뢰가 생긴다면 서로를 걱정하며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제 삶의 언저리에 놓인 수많은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성제의 첫째 덕목으로 사랑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인의 관계에서 통용되는 감정인 세속적인 사랑을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에 대해 좀더 깊이 사색한다면, 모순되지 않게 서로 공존하려는 두 객체간의 절대적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같은 사랑이 세속적인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신화'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은 무형·무색·무취입니다. 마음에 담겨진 내용물이 그 마음 자체라고 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마음에 사랑을 한 그루 심을 수 있다면 거대한 숲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론 타인에 대해 조건없는 사랑을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타심을 느끼긴 하지만 이것을 아량있는 마음, 즉 거대한 숲과 같은 폭넓은 마음으로 까지 이끌어낼 만한 교육 혹은 사회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사회적 장치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아량있는 마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타심을 키우는 방법으로 흔히 선택하는 노력은 단지 스스로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다던가 혹은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 사랑을 키우려고 하는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후 자신이 품고있는 사랑이 두려움·혐오감 등의 종지못한 감정과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객체에게 쏟아야 할 사랑이 단지 몇몇 친숙한 객체에게만 쏟기 때문입니다. 열리지 않는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모든 객체와 자신이 맺고 있는 인연을 볼 줄 알아야하며, 이를 통해 편협된 사랑을 더욱 키워 모든 객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쓴적이 있습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며같은 대기에서 한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형상을 하고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가 구별되고 각기 다른 객체로 보여지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속적인 수행을 한다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수행은 우리가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어김없이 그 생명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관계가 이와같은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보죠.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종종 불건전한 생각을 품고, 매일 시끄럽게 떠든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어느순간 자신이 쏟고 있던 사랑을 자식이 착하지 않고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동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 이타심을 키우고, 이타심은 타인을 마음에 담고 이해하도록 하니까요. 결국 모든 객체를 한 마음에 안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 될 수록 분명 우리는 고도의 정신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을 혐오한다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는 이를 크게 문제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타인을 멸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연법에 따르면, 한 호흡을 하는 동시대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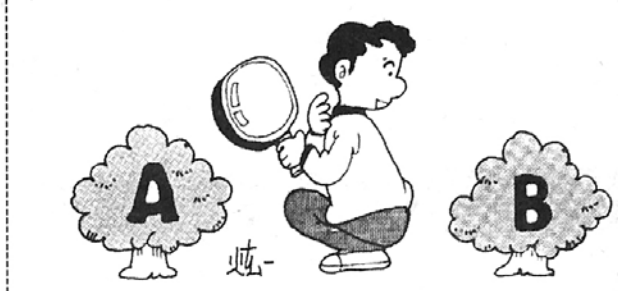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심상에서 분별심을 없애고 이타심을 바탕으로 두려움과 혐오감이 없는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원력이며, 우리는 매일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력

· 1942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1961년부터 4년동안 동아시아를 여행하며 명상법을 익히고 1976년 스리랑카의 고승 아난다메티로부터 수계를 받고 불교에 귀의했다. 그 후 세계 각지에 흩어진 포레스트 사원을 돌며 수행하고, 현재 영국 웩쎄스 포레스트 사원에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모든 객체와 자신의 인연 볼줄 알면 이타심생겨

"사랑을 느끼면 마음이 사랑되듯 사성제 늘 간직하면 불국토 이뤄요"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78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⑮

보어의 상보성원리 반야심경을 지지
물질계는 하나이나 관측이 분리·창조

색(色) 즉 물질계 전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이 물질계를 관찰하는 관찰자마저 관찰대상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에서 나를 분리시켜 자연을 대상으로 놓고 관찰하게 됨으로써 관찰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을 창조한다는 보어의 관점은 아인슈타인(Einstein)으로부터 반박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보어는 〈반야심경〉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심경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인슈타인도 '불생불멸'과 '부증불감'이라는 말에는 동의 했겠지만 '불구부정'은 거부했을 것이다. 여러번에 걸친 논쟁에서 보어가 이겼지만 1935년 아인슈타인, 부돌스키, 로젠 세사람은 보어의 상보성원리에 입각한 자연관을 반박하는 사고실험(思考實驗)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EPR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EPR 패러독스

데 요약하자면 이렇다.

모든 물리량을 측정하여 그 상태를 완전히 알고 있는 입자가 붕괴하여 A와 B라는 입자 둘로 되었다고 하자. 기본적인 물리량은 보존되므로 즉 불생불멸이므로 A를 측정하면 B에 관한 물리량은 측정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핀(Spin)이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방향이 따라 측정하면 +1 또는 -1이라는 두개의 값중 하나만을 갖는다. 따라서 처음에 스핀이 0인 입자가 붕괴하여 A와 B로 나뉘어졌다면 A의 스핀을 측정하면 B의 스핀값은 B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A가 +1이면 B는 -1 이런 식으로 B를 관측하지 않더라도 B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관측행위가 관찰하는 것을 창조한다는 보어의 관점은 틀렸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다. 더군다나 A와 B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즉 몇 광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A가 +1을 나타내면 B는 -1이어야 한다. 보어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A를 측정하기 이전에는 A가 +1인지 -1인지 알 수 없고 A를 측정하여 +1을 얻으면 그때 비로서 B가 -1임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몇광년이나 떨어진 B가 A의 값이 +1로 관찰되었는지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지적이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모든 정보는 빛보다 더 빨리 전달될 수 없기때문에 몇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B에서 A로부터 관측자가 +1이라는 값을 관측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물음에 대한 보어의 답은 아주 간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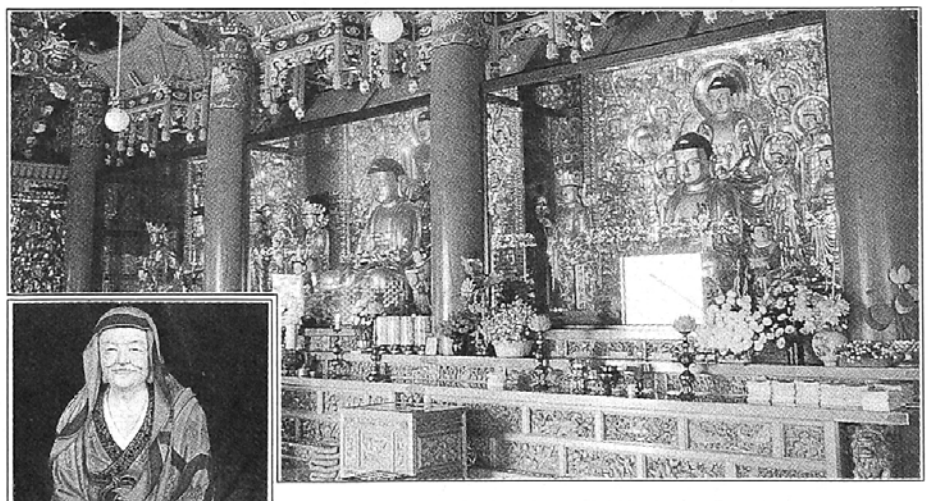
A와 B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관측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물리계라는 것이 보어의 답이다. A를 관측함으로써 A와 B는 서로 분리된 것이라는 것이 보어의 관점이다. 즉 관측행위가 분리를 창조해낸 것이다. 관측하기 전까지 A와 B는 하나로써 전체의 스핀값이 0이었을 뿐 A가 +1인지 -1인지 알 수 없었으나 관측하는 행위 A는 +1 B는 -1 또는 A는 -1 B는 +1의 스핀값을 갖도록 창조해낸 것이다.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이기에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이 관측을 하자마자 모든 것이 즉각 결정되고 창조되는 것이다. 마치 이심전심으로 B가 A에서 일어난 일을 즉각 알아챈 것과 같다.

아인슈타인과 보어중에 누가 옳은가 하는 실험은 1982년에야 이루어졌는데 보어가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전체가 하나이고 관측행위가 창조한 것을 관찰자가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측자와 관측대상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분리되기 전에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물음이 남게 된다. 무엇인지 분석한다면 벌써 하나를 둘로 나눈 것이므로 올바른 답을 알아낼 수 없다. 무슨 답을 얻더라도 그것은 창조해낸 것일 뿐이다. 분리되기 이전의 것은 여러가지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는 허상일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무엇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공(空)이라고까지는 하겠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다. 관자재보살만이 불구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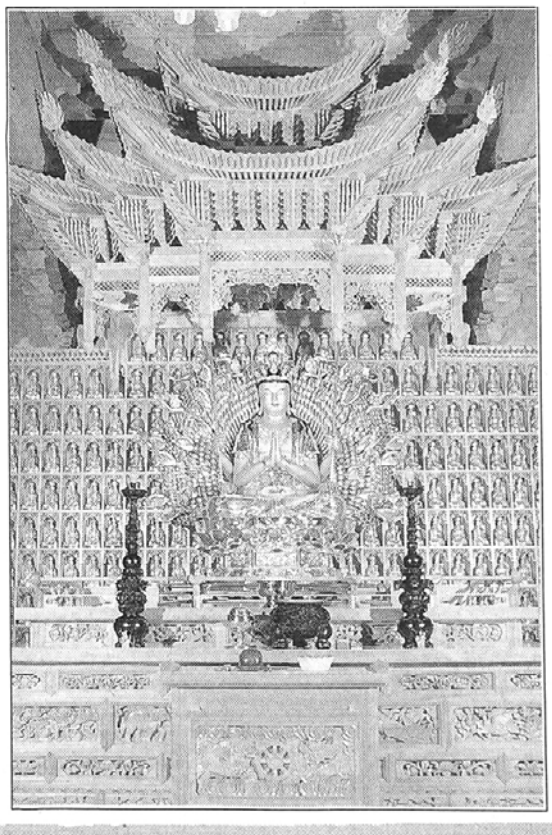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고 백



86

사내는 소석형자가 작은 술에다 끓인 미음이나 죽을 먹고 차츰 몸을 회복해갔다.

아마도 바다안개에 갇혀있는 동안 정신이 이상해진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나라에서 엄금하고 있는 개성 삼포(蔘包)의 장삼노릇을 하는 도중 그의 뒤를 보아주던 포교가 그의 부하를 풀어 그를 처치하도록 했을 때 그 죽을 고비를 간신히 피하며 다쳤던 머리의 부상 때문에 진작 이상해진 것인가.

섬에서의 안정은 그의 지난 날을 지나치게 선명하게 떠올려주는 기억력도 몸과 함께 회복되었다.

미치 처음에는 포도청에라도 잡혀온 것처럼 겁에 질려 미리부터 고백하듯이 상감마마가 세상을 떠났다던가, 그 자신은 개성의 밀매꾼이라던가 하고 횡설수설이었거니와 이제는 그런 말투도 한결 담담해진 것이다.

그는 인담 앞에서만 입을 열기 일쑤였다. 우녀나 소석에게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비굴하기 조차한 인사도 몸의 동작으로만 하였다.

인담은 그를 구조한 직후 맞이다 말을 내뱉고 기절한 상태였을때 그의 가슴 윗부분과 갈비뼈 부위에 굵은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어떤 곡절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다.

그가 몸을 회복하기를 거의 7일이나 걸린 것은 그만큼 그가 늙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담은 그런 사내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인지 그에게 자주 와보지 않고 평소의 입정(入定)시간을 거의 뱁감을 마련하는데 쓰고 있었다.

섬의 위쪽 숲으로 들어가서 소나무 가지를 쳐내어 그것을 한 다발씩 묶었다. 소나무 가지에서 나는 송진 냄새가 좋았다. 일산부는 그런 냄새에 심한 구역질을 할지 모를 만큼 그것은 아주 진한 것이었다.

뻐꾸기는 하루내내 거의 쉬지 않고 숲의 우둠지 어디에 앉아서 멀리 바다를 보고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바다안개로 온 세상이 천막으로 가려진 것처럼 막막할 때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는 울음소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말하자면 인담은 그런 뻐꾸기와 함께 있는 동안 색다른 행복을 누리는 터였다.

사람보다 새나 다람쥐 따위의 잔 짐승이 훨씬 좋을 때가 있었다. 사람이 귀한 이 섬에서의 인담에게 사람이 귀한 상태나 사람이 없는 고독의 상태에 익숙한 나머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보다 저런 잔 짐승들이 더 부처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여기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아무런 스승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고 저 스스로도를 깨치는 일종의 자연오도(自然悟道)와 천진난만하기까지한 잔 짐승의 그 쉬지 않고 움직이는 어여쁨이 하나이기를 바라는 인담의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나뭇단 9개나 10개가 되면 그것을 지게에 지고 두어번 내려오면 되었다. 오늘은 이 일을 해야겠다는 작심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득 지게를 지고 싶었고 나무가지를 솎아내고 싶어서 그런 뱁감의 일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무가지가 솎을 죽이지 않았다가 그것을 차곡차곡 묶어두면 어느새 묶은 것이 아주 양전한 나뭇단이 된다. 그 진한 송진 냄새에 실컷 밴 몸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쌓아두면 하루하루가 지나는 동안 그것은 아주 착실하게 말라가는 것이었다.

송진냄새는 바람이 걷어가버리고 나무가지에 달린 푸른 침엽(針葉)들은 어느새 흐린 주황빛을 띠거나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그 나무단을 풀어 아궁이에서 태울 때는 다시 한번 지난 날의 송진냄새를 얼핏 풍겨주기도 한다.

아무튼 인담은 이런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면서 지난 날 이 섬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은 어느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번뇌하고 공부하고 있는가 하고 떠올리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이 어느덧 다른 세상에 태어난 지도 모르고 지옥의 수고를 연민하기도 하였다.



"이 세상 누구도 난세를 사노라면 풍운을 만나야 하겠지요"

천상계에 올라간 사람이나 어디에 가있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인담의 적막하기까지 한 심상 가운데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었다. 아니 인담 자신도 이 무욕도에서 떠나, 이 세상에서 떠나 다른 세상의 먼 길을 가고 있는 장차의 자신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그런 인담이어서 사내한테 슬쩍 들려보니 사내는 몹시 그에게 반색하는 것이었다.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육지로 보내시렵니까?"

인담은 이 앞뒤가 생략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좀 괜찮아졌소?"

"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이 집안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건 그렇거니와 행수(行首)께서 나 산동지방 포구에까지 건너다닌 잠상이 아니던가. 그런 잠상이라면 바다 밑의 용왕도 마음의 조상신도 산중의 부처님도 믿을 마음이 없는 천둥벌거숭이에 더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사내는 거칠기 짝이 없는 수염발을 바다안개에 적신 나머지인듯 인담의 의연한 무심(無心)가운데 들어가고자 하였다.

그러자니 그는 그 자신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다.

"본디 저는 저 서북 땅 용암포 갯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 열세살때 홍경래군에 나아가 박천싸움에서 패퇴할 때에도 살아났습니다."

"가슴팍의 흉터도 그때의 것이겠습니다."

> "저는 서북땅 용암포 갯가서 태어나
> 열세살에 홍경래군에 가담했지요
> 겨우 목숨을 부지해 중강으로 가다…"

"네, 가슴팍은 그렇고 옆구리는 청나라 포구에서 그곳 패거리한테 칼을 맞은 자국입니다."

사내의 나이는 51세이다. 그런데도 훨씬 늙어 보이는가 하면 말에 점점 힘이 더해지는 것으로 보면 훨씬 아래인 것 같기도 하였다.

인담도 차츰 궁금하였다.

"평안도 8군이 다 홍장군 수중에 들어있을 때만 하여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벅찬 기쁨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원만한 싸움 따위에서 관군 한두명쯤 청나라제 조총으로 쏘아버리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

"그러다가 박천 송림골 싸움에서 지고 다 생포되기는 했으나 성안의 병사들이 다섯명이나 죽어야 하는 손실이 있었다.

사내에게 그들 관군 특공대 사람의 목을 자르는 일이 맡겨졌다. 그는 그 맡나니 역할을 거부할 수 없었다.

청나라의 독한 술을 마신 뒤 세사람의 목을 날렸다.

그것을 줄로 매달아 성벽 아래로 드리워 놓았다.

하지만 다음날 정주성은 함락되고 만 것이다. 사내는 성문을 막는 임무를 포기하게 되자 그 성문으로 밀려드는 관군에 짓밟힌 채 엎드려진 모양으로 죽어있었다.

한참 뒤 그는 죽음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엉금엉금 기어나가 성문 밖의 성벽 밑창에 기대고 있었다. 성밑의 해자가 오랜 세월 메워져서 거기에 풀섶이 우거져 있었다. 바로 거기에 숨어서 남아있는 가쁜 숨에 목숨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본즉 그의 위에 바로 어제 그가 칼로 쳤던 관군의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사내는 놀랐다. 그 놀라움이 힘이 되어 그곳을 정처없이 떠났다.

그렇게 해서 무작정 중강(中江)쪽으로 향하여 기거나 절뚝거리거나 하면서 갔다. 중강이나 강계에는 청나라 잠상이 있고 청나라 병사들이 이따금 조선땅에 건너와 여자를 납치하거나 물건들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잘못 알아서 압록강 하류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구여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양식에 지장이 되거나 문화의 역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재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법업소(오랜전통)
동궁 결혼 연구원
초혼 · 재혼
저희 업소는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소장 金銀子 합장
문의전화:745-3005

사 찰 안 내
절(포교당)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법당 :25평 전세: 3300만원
연락처 (032) 656-7523

포교당 안내
소재 : 중랑구 망우동
2층 30평 방3개 대로변
보증금 :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 900만원
☎ 498-1542
호출기 012-759-5052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혜 창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척추교정 · 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 치료및교육내용 ▶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공장오제 건강 지압법
• 시술도 병행함
장실수
건강연구원
업구정역
543-7306

기도 · 회향 보시 방법지도
지장경독송방법
참회 · 업장소멸과 자녀교육에 도움
가족법회, 건강문제
꿈바위사회교육문제연구소
종로구 인사동 179 - 2
(02)739-5007-8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소재 : 경기도 용인
사찰명: 광제사
—. 40-50대 보살님으로 사찰에서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연락처 : 0335) 34-0664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함,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지평(대흥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영산 수미단 등자 목조탑
• 충청(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개량형 문짝
• 장성(백룡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충주(상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판
• 가산(전흥사) : 대웅전 수미단 등자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양양(진전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판 법상
• 서울(학림사) : 회전 불상, 그외 다수 사찰
대진(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5-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 대 불 교 신 문 사 앞
韓 國 民 俗 哲 學 硏 究 所

사 찰 운 영 하 실 분
위치: 경남 합천군 율곡면 (대구에서 1시간거리)
부지: 1400평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방 3개)
사무실: 12평(방2개)
주차장 : 200평
※ 교통편리, 산세수려 도량내 연못 조경 완비 지장보살 기도 도량
가격은 문의후 별도 협의 연락처 0599-33-4802

귀 대승생활불교강좌 귀 제5기 개강 : 7月25日
1. 불교학 기본교리, 불교건강 ●매주 수요일 저녁6시 ~
2. 예불의식과 재불공 49재구병시식등 ●매주 목, 금요일 저녁 6시~
3. 풍수지리학, 주택 건물 감정, 묘지쓰는법 5운6기 명리학 평색궁합, 운세 길흉법 ● 매주 목, 금요일 저녁 7시~
*연구반, 고급반, 매주 화 수 저녁 7시~
◇강좌시간 : 각반 각 3개월, 선착순 30명
◇수강대상 : 불교지도자로 활동하실 분, 스님, 대학생 ,전공하실분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52-10 (서초역~2분)
구변호사회관뒤~홍부네슈퍼~소니(sony앞)
■ 접수문의 : 대표전화 (02) 523-0241, 마산분교 (0551) 52-4259
대한불교 대승종 대승생활불교대학

청년불자 문화답사

사찰참배 · 박물관견학 · 공동체놀이 · 환경정화

"불심함양 값진 나들이"

야외포교공간 활용…일반인도 적극동참

보고 배우는 차원넘어 사회봉사등 보살행도

전국의 각 청년회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교문화답사 및 사찰순례'가 새로운 포교의 장으로 정착되고 있다.

불교문화유적답사와 사찰순례에는 20~30명에서 1백명이상 규모에 이르른 청년불자들이 참석한다. 이들 답사는 청장년층의 높은 호응속에 불자들뿐 아니라 5~6명정도의 일반인들까지 참석하기 때문에 포교에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는 청년회가 주최하는 불교문화유적답사에 참석한 일반인들이 불교에 쉽게 동화되고 불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불교청년회장 강래철씨(35 회사원)는 "답사나 사찰순례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면 대부분 아무 거리낌 없이 등참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하는 포교활동은 대단히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몇년전부터 봄이 일기 시작한 불교문화유적답사는 일반인들에게까지 높은 호응을 얻게 되면서 청년회의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정례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교문화유적답사는 1박2일내지 당일코스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불법이 살아숨쉬는 사찰속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회원들간의 유대강화, 신심함양, 포교(회원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불교문화유적답사의 프로그램도 그동안 사찰을 참배하고 법회만을 진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근 지역 유적지탐방, 박물관 견학, 토론회, 공동체 놀이, 환경정화캠페인, 극기훈련 등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불교문화유적답사가 청년불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되면서부터 불교청년회는 그동안 가장 큰 난제로 여겨왔던 회원확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조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청년회 장들의 말이다.

한편 불교청년회는 불교문화유적답사를 사찰순례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보살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 경기도 화성군 쌍계사 둥지어린이집을 방문해오고 있다. 청년회원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법회를 진행하는 한편 청소, 학습지도 등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의 몇몇 불교청년회 회원들은 소쩍새 마을, 자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등 불교문화유적답사를 통한 대사회적 구호, 위문,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불교청년회별로 벌이고 있는 불교문화유적답사는 지나친 불교적인 면을 지양하고 선조들의 참얼과 자연의 이치속에서 신심증장과 포교를 이끌어내고 있어 청장년층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중근 기자



◇ 불교문화유적답사 및 사찰순례 법회는 청년회원들의 신심증장은 물론 포교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청소년게시판

불자청소년 여름캠프

서대문 은평·마포지구 청소년불자연합캠프위원회(위원장 이명권)는 8월6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정선 무릉계곡일대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중고등학생 불자와 청소년지도자 3백여명이 동참할 예정인 이번 캠프에는 △감력훈련 △전통놀이 배우기 △OL경기(산행정진)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02)352-6406

파라미타캠프 준비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총재 성타·조계종 포교원장)는 지난 13~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보이스카우트 중앙연수원에서 연합캠프 진행지도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는등 본격적인 행사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사진〉

이날 진행지도자들은 야영법, 매듭, 응급처치, OL실습, 민속놀이 등 실습교육을 받았다.

어린이역사교실 마련

울산불교문화원(원장 최효식)은 25일부터 29일까지 제1차 어린이 역사교실을 마련한다. 사찰예절, 불교기초교리, 슬라이드 상영 및 28일에는 불국사 석굴암을 참배할 계획이다. (0522)65-2727

성주사 보리수학교

성주사(주지 원정)는 24일~26일까지 제11회 어린이 여름캠프 보리수학교를 개설한다. '해맑은 동심 부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취학전 아동 30명과 초등학생 60명을 각각 모집할 방침이다. (0551)62-0108



◇파라미타 연합캠프 진행지도자들이 야영법을 실습하는 모습.

한일은행 '21세기 한마음 통장'

은행 수익금중 일부 고객 지정 사찰에 보시

종단 또는 사찰이 통장의 이름과 디자인을 정하고 은행만의 부담으로 세후이자 20%가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에 보시되는 금융상품이 개발됐다.

한일은행(은행장 이관우)이 지난 15일부터 시판에 들어간 '21세기 한마음 통장'의 특징은 고객은 종전대로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 전액을 받고 은행수익금중 일부가 고객이 지정한 단체로 보시되는 것이다.

즉 고객은 한푼의 손해없이 은행거래만으로 보시행을 할수있게된 셈이다.

해인사·봉은사통장 등으로 자유롭게 이름붙여진 이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보통예금과 저축예금등 모체계좌의 경우 세후 이자 20%를, 정기예금 적금 등 연결계좌의 경우는 실적에 따른 보너스 금리 0.25%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찰이나 신행단체의 계좌에 보시하게 된다.

보통예금가입자의 경우 천만원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분기별로 지급받는 세후이자가



약 10만원. 이때 '21세기 한마음 통장'은 이자의 20%인 2만원을 분기별로 고객이 지정한 사찰이나 단체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 상품은 분기별로 배당받는 세후이자의 경우 기존의 공익형 금융상품이 최대 2%의 이자율을 배당하며 이자 출연처를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10배가 넘는 이자율과 이자 출연처를 고객이 자유로이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기영과장(고객관리부)은 "이 상품의 가입절차는 사찰이나 단체가 스스로 정한 이름으로 통장개설을 신청하면 은행은 통장개설과 함께 단체번호를 부여한다"며 "소속회원과 신도는 소속단체로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고 밝혔다. 〈근〉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코끼리의 장 *
착하게 살면
죽는 순간에도
즐겁다



이 향 원



btn캠페인 ① 불교 TV시청자가 됩시다

부처님을 자주 뵈면 부처님이 됩니다

불교TV! 부처님을 매일 만납시다

불교TV를 보면 불교를 알게됩니다.
불교TV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문화전통의 짙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미소 그윽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제 불교TV영상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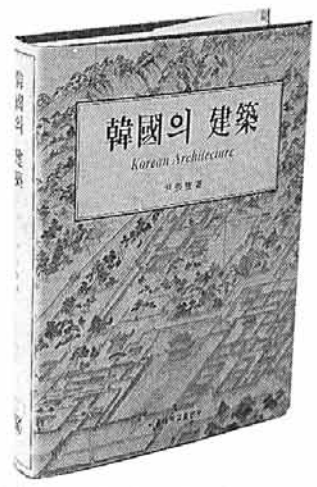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전통가람배치 자연합일 사상"

윤장섭교수 평생역작 '한국의 건축' 펴내


◇윤장섭교수



선사~조선시대 건축 총망라
북한자료 포함…中·日과도 비교

"우리 전통 건축물의 특징은 인간적인 친근감,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 부분보다는 전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전통사찰의 가람배치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찰 탑 부도 등 불교건축의 역사와 특징을 포함, 우리의 전통 건축문화를 집대성한 책 〈한국의 건축〉(서울대출판부 刊)을 평생의 역작으로 펴낸 윤장섭 서울대 명예교수(71·학술원 회원)의 우리 건축관이다.

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주거지 사찰 탑 부도 궁궐 정원 성곽 분묘 서원 등 전통 건축물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한국건축사 서적이다. 전통 건축문화를 통해 우리 문화의 특징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이 책은 북한의 연구자료와 발해시대 건축문화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건축물과의 동이점을 분석하는 등 방대한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특히 사찰건축 분야가 그동안 목조건축 탑파 부도 등 분야별·시대별로 부분적으로만 연구되어 온 상황을 감안할 때 개별 연구성과를 건축학적 관점에서 통사적으로 묶은 첫번째 연구성과란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또 시대별 항목별로 각 건축물의 특징과 등장배경을 설명하고 풍부한 도면과 사진을 넣은 점도 돋보인다.

그간 사찰건축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은 장경호씨(전 문화재연구소장)의 〈고려 조선의 목조 건축〉(예경), 김동현 문화재연구소장의 〈한국 목조건축의 기법〉(발언) 등 몇 권에 불과하다. 한국건축사 분야의 책도 리하선씨의 〈조선건축사〉(발언) 등 다수 나와 있으나 시대적 분야별로 한정적으로만 서술되고 있다.

윤교수는 우리의 건축정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인물로 신라 불국사 석가탑을 건축한 백제인 아사달을 든다. 최근의 부실공사도 주인(건축주)과 일꾼(시공자) 모두가 아사달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목욕재계하고 치성을 드린 후 탑을 완성하기까지 애인인 아사녀 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하는 그 장인정신이 사찰불사에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윤교수는 이와관련 우리의 대표적 전통건물인 사찰의 훼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통사찰의 내부나 주변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은 경관의 파괴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파괴"라며 스님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난 81년부터 문화재위원을 10여년 이상 역임하기도 한 윤교수는 최근의 황룡사·감은사 복원문제와 관련해서도 '추정복원'은 문화재 보호가 아닌 훼손이라며 불확실한 엉터리 복원보다는 문화공원 형태로 가꾸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한국고유의 특성을 지닌 건축물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한국 최고의 목조건축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서울 남대문, 창경궁 명정전과 인정전, 김제 금산사 미륵전 등을 손꼽았다.

김재경 기자

초등학생에 권하는 책 1천권

박강희씨 도서지침서 '…어린이책목록"


◇박강희씨

전 불교인권위 사무처장이자 유아·어린이 도서전문유통업체인 '서당'의 대표 박강희씨(40)가 〈전국 어린이 서점이 권하는 어린이책 목록〉(논장 刊)을 펴냈다.

0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나이에 따라 분야별로 권할 만한 책 1천권을 꼼꼼하게 소개한 이 목록집은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주고 싶은 부모나 교사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모두 1만권을 찍어 전국의 도서관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서점에 무료로 보내고 있다. 또 1년마다 새 목록을 만들어 어린이책의 충실한 길잡이로 만들 예정이다. (02)335-0525

'님의침묵' 불어판 출간

만해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이 최근 프랑스 오트랑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됐다.

〈LE SILENCE DE NIM〉이란 표제를 달고 나온 이 시집은 문예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김현주씨(국제교류재단)와 매기석씨(PIERRE MESINI,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신부)가 함께 불역했다.

이번 불어판은 영문판에서 'LOVER'나 'LOVE'로 번역됐던 '님'을 'AMOUR'나 'AMANT'으로 옮기지 않고 한국어의 어감이나 한국인의 정서를 살려 그대로 'NIM'으로 한 점이 돋보인다.

화제의 책

서역불교조각사 — 임영애 지음



흔히 한국불교조각에 있어서 인도적이지도 않고 중국적이지도 않은 불교조각양식을 '서역적'이라 부르지만, 구체적으로 '서역적' 미술양식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임영애씨(이화여대 강사)가 펴낸 〈서역불교조각사〉는 실크로드에 산재한 불교조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한국불교조각과의 연관성을 조명하고 있어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이 책은 1백여장 이상의 도판을 곁들여 간다라 및 간다라 후기 양식의 영향을 받은 서역의 소조상(흙으로 빚은 조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에서 서역적 불교조각 양식이 중국에서 보다 더욱 풍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다. 또 서역남북로 조각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 학설을 비판한다. 〈일지사 1만4천원〉

실크로드 불교조각양식 심층분석

불교와 양명학 — 아라키 겐고 지음



불교심학인 선학과 유교심학인 양명학은 과연 동일한 사상체계일까.

아라키 겐고(일본 규슈대 명예교수)의 〈불교와 양명학〉은 이런 화두에서 출발해 불교와 양명학, 주자학의 관계를 사상사적 흐름속에서 비교하고 있다.

저자는 불교와 양명학이 인간 존재의 근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점과 주자학이 제창한 형식주의에 반대한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양명학은 불교처럼 규범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규범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결론짓는다. 한편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중국 명대에 등장한 양명학 역시 禪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단으로 몰아부쳤었다. 역자는 중국 근세사상사를 전공한 전북대 배영동교수.

〈혜안 7천원〉

禪사상과 양명학 사상적 흐름비교

새로나온 책…



▲왕오천축국전(한정섭 편저)=혜초스님의 위대한 구도정신을 담은 〈왕오천축국전〉과 향가문학의 비조인 균여스님의 전기 〈균여전〉, 신라 선사들의 기이한 행적을 담은 〈수이전(殊異傳)〉을 통해 바른 신행관을 갖게 한다. 각각 해제와 번역문·원문을 곁들였다.

〈불교대학교재편찬위 5천원〉

▲한국사회사상사(이은순 외 9인 공저)=불교 유교 등의 종교사상은 사회변동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추동해 내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사회체제를 유지하기도 한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불교' 등 12편의 논문을 통해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상들을 조명했다.

〈지식산업사 1만2천원〉



▲개짖는 소리(대주 저)=법무부 교화위원이자 의정부교도소 종교위원인 백선사 주지 대주스님의 짧고도 교훈적인 이야기 모음. 재소자 교화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속에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의 지혜를 일러준다.

〈백선출판사 5천원〉

▲생활속의 에너지 요가(린 마르셜 저)=요가는 인체의 전부위를 개선시킨다. 또 자신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며, 긴장이나 근심 같은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전원문화사 5천원〉

▲음예공간예찬(타니자끼 준이찌로 저, 김지견 역)=물밀듯이 밀려드는 서구의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과 결과를 담담하면서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더 부드럽고 조용하며 더 음율한' 미적 전통을 예찬한 수필집. 〈발언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2	전생여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3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 집 부	정 토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5	영원한 대 자유인	강 정 진	경 서 원
6	불교 절에 대한 바른 이해	청 암	우 리
7	부처님의 유언	공 파	태 일
8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가지 주제	정 승 석	대원정사
9	훨훨 털고 같이 가세	서 암	정 토
10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무비스님 '불교공부'

'시의 최고의 경지는 종교의 궁극적 경지와도 통한다'고 하여서인지 스님들 중에 시조시인이 많다. 오현 이두성우 효경 준현 지원 청화 스님 등은 불교계의 중진 스님이자 시조시인들로서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모두 불심이 깊고 시조 작품들도 고도의 경지에 들어서 있다. 개인적으로는 오현스님의 '산에 산에 사는 날'이란 시조를 좋아한다. 필자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분들의 영향이 크다.

평소 필자는 불교를 인간존중의 종교라고 생각해 왔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탄생 직후 선포한 '천상천하에 내가 오직 존귀하다'는 유아독존(唯我獨尊)이란 말씀에 기인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것을 나 즉 한 인간인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는 뜻으로 풀이해 왔다. 그것은 석가모니 자신이자 '모든 인간 존재'라는 것이니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존재성을 설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무비스님의 〈불교공부〉(민족사 刊)는 이러한 평소의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해준 깊이 있는 책이다. 불자인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이 책은 불교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등 불교에 관심은 있으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이 서지 않는 초심자들을 위한 신행위주의 불교공부 안내서이다. 특히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교리강의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생활상의 불교를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불교 신행의 근본 줄기를 이루어 온 믿음(信) 이해(解) 실천(行) 성취(證)의 전통적 수행교육방법을 채택하면서 스님 개인의 의견보다는 경전의 가르침에 충실한 점이 기존의 교리서와 다른 독특한 점이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올바른 견해이다. 의식주와 명예,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다. 불교에서는 이같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바른 견해를 '반야의 지혜'라고 한다.



이 태 극
〈시조시인협회 명예회장〉

경전에 입각 초심자 신행안내
교리강의보다 생활불교 중시

무비스님은 삶과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로 인한 보다 뜻있고 유익한 삶의 공유를 위해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롭다'라는 평소의 신념대로 이 책을 엮었다. 불멸(佛滅) 후 5백년경에 나타난 대승불교운동역시 본래의 부처님 사상으로 되돌아 가자는 데 뜻을 둔 것처럼 스님은 전통적인 방법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깨달음과 실천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본다. 서로가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현세가 그대로 극락일 것이다. 누구나 착한 마음으로 참된 생활을 영위한다면 모든 사람이 불자가 되고 이 세상이 그대로 불계(佛界)가 될 것이다.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법구경 ①②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헤매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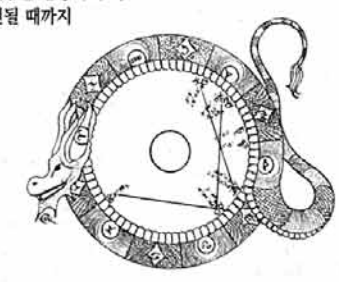
조 피셔 지음 /손민규 옮김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셔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달라이 라마 –



신국판/280면/값 6,000원

태일출판사

출판원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만나봅시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상임대표 김재홍 교수

"만해스님 자유평등사상 방황의 시대 생명수"



"만해스님은 사상이나 실천력, 높은 지조정신, 위대한 문학적 성과등 어느모로 보나 그를 뛰어넘을 인물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민족의 사표입니다. 그분이 선구한 자유·평등정신 민족·민중정신 진보·통일사상, 평화사상 등은 오늘날 우리의 분단현실에서 나날이 소중한 민족의 덕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증폭되고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는 만해스님과 같은 인물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만해의 높은 사상과 문학적 성과를 기리기 위해 교계 내외 만해사상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발족한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상임대표 김재홍교수(경희대)는 "역사속에 박제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민족의 위인, 국민시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한다.

'님의 침묵'이 쓰여진 유서 깊은 고찰 백담사가 단지 유배지 정도로 세인에 알려진 것을 안타까워한 오현스님(신흥사 회주)의 원력으로 만해스님의 열반 52주기인 지난 6월 29일 백담사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공식 발족됐다. 운영위원장에 백담사 주지 마근스님, 총재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공동대표에 지홍스님(낙산사 주지) 김규칠교수(언론인)와 김재홍교수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불후의 명작 '님의 침묵'이 쓰여진 백담사에 본부를 두고 만해당과 만해기념관도 건립하고 있다. 완공되면 스님의 유품과 '님의 침묵' 관본등 만해스님 관련 각종 기념물이 상설전시될 예정.

'만해선양회'가 계간으로 낼 기관지 〈만해새얼〉의 발행겸 편집인도 맡은 김재홍교수는 〈만해새얼〉지 발간후 전국순회 강연을 가져 단순히 종교인 또는 문학인으로만 알려져 있는 만해스님에 대한 고정인식을 타파시키고, '불교계만의 만해'가 아닌 '전국민의 만해'로 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번에 제막식을 갖게된 것.

창립사업 백담사에 만해당등 건립
'만해새얼' 발간…시어사전도 준비

〈만해새얼〉 창간호에는 △이 시대 만해를 다시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만해시 △만해전기 등 한용운스님을 다각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특집이 실린다.

김재홍교수는 이외에도 현재 한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시어(詩語)사전〉이라는 대작업의 막바지 원고점검에 눈코 뜰새가 없다. 지난 4월 출간 예정이었으나 자꾸만 새로운 시어들이 추가되는 바람에 늦어졌다. 국내최초인 이 방대한 작업에 뛰어든 것도 〈만해 한용운 문학연구〉로 박사논문을 쓰면서부터.

"만해의 시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많이 만났지만 사투리사전을 뒤져도 끝내 알수 없는 말들이 적지않아 결국 충청도 촌로들의 자문을 구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만해의 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용례를 찾아 대비한 끝에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며 그뒤부터 시를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적어두는 버릇이 생겼고 마침내 〈시어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빼어나게 구사한 서정주 김소월 김영랑 고은시인 등으로부터 박용수 김정환 등 젊은 시인들의 최근 시집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전에 나오지 않는 시어 2만5천여 개를 표제어로 삼았다. 오는 10월 출간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57〉

숫돌인양 평평한 길

遙指寄邦落日邊 (요지기방낙일변) 멀리 보이네, 국토 끝 해지는 변경
路平如砥直如絃 (로평여지직여현) 숫돌인 양 평평한 길 활줄처럼 곧다
歸時冉冉金臺至 (귀시염염금대지) 가는 때 뚜벅뚜벅 황금누대 이르고
生處田田玉藕圓 (생처전전옥우원) 사는 곳 둥글둥글 흰 연꽃 등글다
但自一心心不亂 (단자일심심불란) 다만 스스로 한마음, 마음 흐트리지 않고
休論十念念不專 (휴론십념념불전) 수시의 염불에도 오롯하지 못한 염불
從來敎主深悲願 (종래교주심비원) 처음부터 부처님의 깊은 자비 소원을
爭奈吾人却步前 (쟁내오인각보전) 우리는 한 발씩 앞에서 멈추니 어쩌나

이 시는 백암선사 정토찬 백수의 연작에서 맨 첫째 수이다. 정토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이르려는 마음가짐을 노래하였다. 삶에는 유형 무형의 길이 많다. 하루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움직임의 모든 것이 유무형의 길이다. 이 길은 길이 길을 낳아 한없는 길로 이어진다.

정토로 가는 길은 숫돌보다도 더 평탄하고 활줄처럼 곧은 길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길이란 곧기보다는 굴곡이 많음이 일상적이나 이 굴곡을 두려워한다. 이 굴곡을 두려워 않고 모험을 하는 이가 성공에 빨리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림살이에 있어서 이 정토의 길보다 더 안전한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 가는 걸음 걸음이 황금 누대로 가는 길이나 염염이란 표현은 여유 있는 걸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걸음이 매우 경쾌함을 이른 것이다. 이 정토를 향하는 걸음이 평생을 걸었던 어느 발길보다도 가벼운 걸음임을 알 수 있다. 갈 곳은 연꽃의 아름다운 동산이다. 田田이란 연잎의 둥근 모형을 의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곳을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전일해야 한다. 생각생각도 오롯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평상인의 마음은 항시 전일하지가 못하며 자비소원안에 들려 하다가도 짐짓 딴 마음으로 그 소원이 무너지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또한 경계해야 할 점이다. 한평생 정념의 생활을 하고 이제 황혼의 인생길에서 다시 더 정토에 대한 갈구로 시를 쓰는 노스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음미하게 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만해스님탄신 117주년 뜻 기리는 행사 다채

독립기념관에 어록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조계종 총무원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후원으로 오는 8월25일(추후 변경될수 있음) 천안 독립기념관에 만해스님어록비 제막식을 갖는다. 높이 5미터 너비 4.5미터의 오석에 새겨질 내용은 만해스님이 1919년 옥중에서 쓴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비의 뒷면에는 스님의 연보가 새겨진다.

대불청은 지난 89년 독립기념관에 만해스님어록비를 세운바 있으나 비의 위치가 너무 구석진 곳에 위치한 데다 내용에 오자가 있고 글씨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 독립기념관측으로부터 보수 및 교체 요청을 받아 지난 93년부터 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번에 제막식을 갖게된 것.

님의침묵' 뮤지컬로

○…만해스님의 일생을 뮤지컬로 꾸민 '님의 침묵'이 극단 신시뮤지컬컴퍼니에 의해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 오는 9월1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되는 '님의 침묵'은 83년 초연후 13년만에 재공연되는 것. 초연때 연인원 5만명이상이 관람하는 등 호평을 얻은 '님의 침묵'은 김상렬(연출) 유승엽(음악) 김갑수(만해스님역)씨가 다시 힘을 합치고 특히 세사람 모두 불자란 점에서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상징적인 무대와 격정적인 선율, 록뮤직에 의한 빠른 무대회전 등 새롭게 재창조되는 뮤지컬 '님의 침묵'에는 방주란 최주봉 김길호 김기섭 이창훈 등 베테랑급 배우들이 출연한다. '님의 침묵'은 제 20회 서울연극제에도 출품된다.

8월14일 홍성 '만해제'

○…만해스님의 고향인 충남 홍성군 홍성문화원은 오는 8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홍성군 일원에서 제2회 만해제를 개최한다.

광복 51주년과 문학의 해를 기념해 한용운스님의 독립정신과 뛰어난 문학세계를 조명해보는 만해제는 14일 전야제 만해문학의 밤, 15일 길놀이 독립만세운동재연극 기념식 추모영산재, 16일 백일장 대동제 등의 행사가 벌어지고 13일부터 17일까지 문화원 전시실에서 〈님의 침묵〉 시집전시, 만해영상슬라이드쇼, 시화전 등이 열린다. 또한 전국 유치원 원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도 펼쳐진다.

만해 한용운스님 탄신 117주년(8월 29일)을 맞아 어록비제막 향토축제 뮤지컬 등 스님의 사상적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통일기원 전국순회 연주회

8월7일 제주 시작 15일 임진각서 회향

교계 유일의 전문 소년소녀 합창단인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단장 황학현)이 광복 51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기원하기 위한 전국순회 연주회를 갖는다.

8월7일 제주에서 시작해 8월15일 임진각에서의 회향까지 1주일간 실시되는 전국순회연주는 각 지역의 사암련과 청년회와 연계돼 실시된다. 연주회에서는 '파랑새 울고' '내마음 연꽃' 등 찬불가, 한민족의 숨결과 정서가 아로새긴 전래동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강산' 등 통일의 노래, 7천만 겨레가 함께 부를 수 있는 한국민요등 20여곡을 편성하여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소망을 음악으로 승화시킨다.

8월7일 제주문예회관, 9일 부산문화회관, 11일 대구시민회관, 12일 광주원각사, 15일 임진각에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는 한국불교소년소녀무용단 10여명이 펼치는 부채춤 화관무등의 공연도 들어있다. 지휘 민선희씨. (02)725-7527



◇8월 7일 제주에서 시작해 15일 임진각에서의 회향연주까지 통일기원 전국순회공연을 갖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문화소식

범일스님 수묵전

범일스님(부산 용화선원)이 '사유하는 삶 그리고 얼굴'이란 주제로 오는 8월 10일까지 부산 정인갤러리(051-248-9090)에서 수묵화 전시회를 갖는다.

전승공예출품작 공모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김전배)은 오는 10월 경복궁 전통공예미술관에서 열리는 제21회 전승공예대전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전승공예기능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전승공예대전은 금속 도자 옥석 초고 직물 지물 염색 피·모·각·목·죽·칠공예 등 전통재료 및 기법으로 제작한 전통공예 전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02)739-5987

연대박물관 전용전시관 '印殿' 개설 안광석씨

"자식같은 전각·서예 대중회향"

6백여 작품 기증…가을부터 일반 공개

"내 분신처럼 아끼던 작품들이라 어디 잘 보존해 줄 곳을 줄곧 찾고 있었는데 연세대박물관과 인연이 닿은것 같습니다." 전각가 안광석옹이 평생을 자식처럼 아끼던 작품들을 대거 연세대 박물관에 기증, 전용전시관 '인전(印殿)'을 마련한다. 오는 가을부터 상설전시에 들어갈 예정이라 그 준비에 한창인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소장했던 도장 5백여개 판각 30여개 서예 30여수가 전시된다.

또한 그동안 안옹이 가까이에 두며 돌과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데 쓴 철필들도 함께 전시한다. 작품들을 박물관에 보내는 심정은 마치 딸을 시집보내는 것처럼 시원섭섭하나 종립 등국대에 보내지못한 아쉬움도 작지 않다.

연대 개교 112주년이 되는 내년 5월, 박물관에서 청사(晴斯, 안광석옹의 호) 개인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가 팔순인 안옹은 최근 갑골 종정문과 암화를 모은 전각·서각집 〈장지은허삼종(藏之殷墟三種)〉도 출간했다.

해방전 중국에 가서 암화(岩畵)를 탁본한 것도 정리해 이번에 같이 묶었다. 갑골관계 서로는 한국서 처음 나온 책으로, 안옹이 그 수려한 글씨로 직접 써서 축소해 넣은 해설문이 더욱 이채롭다.

한편 안광석옹은 오는 9월부터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매주 한번씩 전각·서예를 가르친다. 〈숙〉



강익중씨 작품 목각부조 8천여점
美 현대미술관에 영구소장

'붓다를 찬양하며' '영어를 배우는 붓다' 등 불교를 주요 소재로 하여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는 재미조각가 강익중씨 〈본지 70호13면 보도〉의 목각부조 8천여점이 미국 서부의 가장 영향력있는 현대미술관 LA MOCA(Museum of Contemporary Art)에 영구 소장된다.

3인치 화폭에 일상의 흔적이나 단상을 담은 독특한 작품으로 백남준 이후 국제미술계에서 한국을 빛낼 유망주 가운데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강익중씨는 동양과 서양의 융합위에 현대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성공적으로 포착한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강익중씨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00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부	•야간부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부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부	•통신부		
중 국 어 과	2년	•주간부	•야간부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부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부	•통신부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제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22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대전문경서적: 252-8558, 부산불교서적전시관 : 632-7393,
대구제일서점: 424-0801, 마산학문당 : 46-2925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중국명문한의대 고급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대학: 남경중의약대학
•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 8박9일
•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간염, 좌골신경통 침치료, 비만치료 기공등
• 연수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수료증 수여
• 인원 : 15명 이내
• 출발일 : 1996년 8월 15일 (목)
•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 - 2026 ~ 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베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BBS 공개방송

"포교현장으로"

여름특집 잇달아…'블루콘서트' 등 다양
불자연예인등 인기스타 총출동…팬클럽도 결성

인기스타들과 함께 더위를 식히는 포교의 현장 'BBS 공개방송'이 여름을 맞아 특집 공개방송을 연이어 개최, 매회마다 5천명이 넘는 인파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번 'BBS 여름 특집 공개방송'은 오는 26일, 8월3일, 4일, 9일, 11일, 23일, 24일까지 연이어 펼쳐지게 된다. 이에 앞서 BBS는 지난 6월29일, 7월7일, 17일, 20일, 21일에도 이미 대형 공개방송을 인기리에 진행해 왔다.

BBS 여름 특집 공개방송은 그 이름과 내용도 다양하다. 기존프로그램 이름을 딴 백팔가요 특집 공개방송을 비롯 오는 8월3일에는 여름을 더욱 달구어줄 젊은층을 겨냥한 '블루콘서트'가 준비돼 있고, 이어 8월 4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한여름밤의 트롯 대행진'도 진행된다. 또한 8월11일에는 2002년 월드컵 유치 성공기원 및 제6회 경포호 유등 대법회를 겸한 'BBS 특집 공개방송 강릉시민과 함께'가 경포대 해수욕장 특설야외무대에서 시원스레 펼쳐질 계획이다.

"BBS의 공개방송은 타 방송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타방송사들의 자극제가 될 정도"라는게 방송가 주변의 평. 여기에 김병조, 김종석, 김수정, 김창남, 남희석등 불자 MC들의 신심어린 진행과 요즘 최고 흥행주가를 올리고 있는 클론, 룰라, Ref, 신승훈, 이예린, UP, 삐삐밴드, 녹색지대 등과 같은 국내최고 인기스타를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어 1시간 내내 무아의 경지에서 불교를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얼마전부터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BBS공개방송 팬클럽이 결성돼 매번 공개 방송때마다 참석, 공개방송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고 담당 유병직차장은 전하기도.

이밖에도 BBS 공개방송은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 특집 공개방송을 비롯,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빈곤퇴치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도 열었으며 오는 9월에는 한중일 삼국불교대회와 함께 열리는 불교문화대제전에서 대중을 함께 묶는 징검다리 역할을 공개방송을 통해 펼쳐보일 예정이다.

라디오 청취자와 현장의 방청객 모두가 함께하는 마당 'BBS 공개방송'은 앞으로도 불교포교의 새로운 한 모델로써 더욱 신선하고 활기찬 불교의 모습을 전하는 첨병이 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BS 공개방송 참여문의 (02)705-5114.

이은자 기자

공개방송	날짜	시 간	장 소
백팔가요여름특집	7.26	오후 8시	서울랜드 세계광장
블루콘서트	8. 3	오후 8시	평창 보람휘닉스파크
한여름밤의트롯대행진	8. 4	오후 8시	서울랜드 삼천리대극장
백팔가요여름특집	8. 9	오후 8시	서울랜드 세계광장
…강릉시민과 함께	8.11	오후 8시	경포대 해수욕장
백팔가요여름특집	8.23	오후 8시	서울랜드 세계광장
백팔가요여름특집	8.24	오후 8시	롯데월드 호반무대



◇BBS가 주최한 빈곤퇴치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 현장. 그룹 솔리드의 노래에 5천여 관중이 열광하고 있다.

종단소식

캄보디아 훈센총리 16일 봉원사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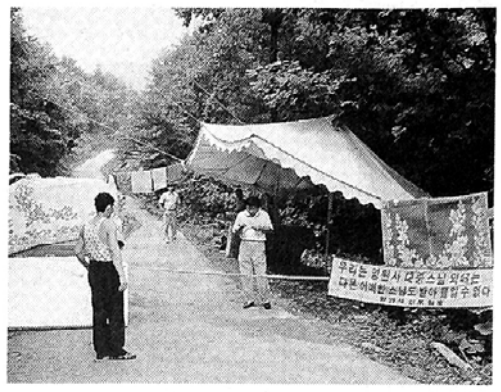
한국과 캄보디아간의 불교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은 지난 16일 신촌 봉원사에서 방한중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의 불교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훈센총리는 "봉원사 중창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필요한 원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혜초스님은 "종단도 양국간의 원활한 불교교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태종 중앙청년회 구인사서 수련대회

천태종 중앙불교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제13회 전국 청년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관음정진을 통한 수행관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수련대회는 관음정진, 특강, 환경수호 캠페인 및 극기훈련, 각 지구별 토론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영원사 주지임용에 반발하는 신도들이 두달째 진입로를 막고 스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비에젖은 텐트를 말리는 신도들은 "20여년간 비구니스님과 신도들이 힘을모아 중창했다"며 비구스님의 주지임용을 반대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이천 영원사 '산문폐쇄' 현장을 가다

신도들 생업전폐 '사찰지키기'

전임주지 20년 중창불사 공적인정 요구
용주사 "임기 세 만기 안넘기는 것이 관례"

"영원사 스님이외에 어느 스님도 절에 올라갈수 없습니다. 우리손으로 기왓장을 올려 비구니스님들과 지은 절인데 다른스님들이 뺏으려 해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이천 백사면에 소재해 있는 영원사 진입로. 4~5명의 건장한 마을청년들이 나이론 끈으로 길을 막고 통행인의 신분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었다. 신도들이 스님들의 통행을 제한하며 '산문폐쇄'를 단행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산위에 있는 절에 전화로 보고를 하자 통행이 허락되었다. 1천3백여m에 이르는 진입로가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는 것이 비구니사찰의 정성을 느끼게 한다. 절에 다다르자 20여명의 보살들이 경내에 옹기종기 앉아 손님을 맞는다.

영원사는 신라 선덕여왕 7년(638년)에 세워진 전통사찰이다. 경내에는 창건당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약사여래좌상이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사는 20여년전만해도 작은 법당과 요사채만 남아 폐사에 가깝게 퇴락해 있었다. 1975년 당시 21세였던 성근스님이 주지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근스님이 20여년간 불사와 포교에 전념해 지역 유수의 사찰이 되었다. 지난 4월, 성근스님의 주지임기가 만료되자 본사인 용주사는 그동안 성근스님의 공적을 인정하던 전례를 깨고 새로운 주지를 임명했다. 신도들은 영원사를 부흥시킨 성근스님과 제자들을 하루아침에 대책도 없이 절에서 나가라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4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신임주지의 임용을 재고해 줄것을 관계요로에 청원했다. 비구니스님들 사이에는 또다시 '비구들의 비구니사찰 뺏기'가 재현되는것 아니냐며 사태해결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용주사측은 "주지는 세 만기(한 만기 4년)를 넘기지 않는 것이 관례다"며 "성근스님과 신도들은 종도로서 종헌 종법에 따라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총무원도 본사의 뜻에 따라 주지 임용장을 발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갈등이 신도들로 하여금 대책위를 꾸리게 했고 60여명의 신도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두달째 5개조로 나뉘어 사찰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 변인균위원장은 "신도들의 시주로 진입로를 비롯한 모든 불사가 이루어졌다"며 "영원사를 일으킨 지역불자의 소리도 귀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죽어도 물러설 수 없다'는 플래카드 아래에 모여앉은 영원사 신도들에게서 본사와 총무원에 대한 분노가 엿보인다. 지역정서를 무시한 주지임용의 폐해가 어처구니없게도 신심(信心)을 불신(不信)으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이천=이준엽 기자

btn 방학특선

25부작 '서유기' 방영

불교TV가 여름방학 특선 어린이 드라마 25부작 '서유기'(오후 2시35분~3시25분)를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방영한다.

손오공과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서유기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서유기는 중국 CCTV에서 수입했으며 배한성, 김용식, 황원 등 불자 성우가 더빙작업을 마쳤다.



'BBS 스포츠' 매일아침 올림픽현장 중계

매일 아침 불자들의 하루에 활력을 제공하는 'BBS 스포츠'(오전 8시40분~9시5분)가 올림픽을 일주일 앞둔 지난 15일부터 제26회 애틀란타 올림픽 현지와 연결, 생생한 올림픽소식을 배달하고 있다.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8월 6일까지 계속 애틀란타 올림픽 소식을 특집으로 다루는 이 프로의 진행자 조문배 아나운서는 "미국 현지의 연합통신, 일요신문, LA라디오 기자들을 전화로 연결해 그날의 주요 경기일정과 국제적 스타선수의 에피소드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BBS 스포츠는 이번 올림픽 특집 방송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스포츠외교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애틀랜타 올림픽조직위가 조지아대학의 기독교회관을 빌려 마련한 종교관 입구.

애틀랜타올림픽선수촌 종교관 개설

불교·기독교등 6개방…종교의식 대행업 상주

애틀랜타 올림픽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올림픽 선수촌에 종교관을 개관했다. 이 종교관은 선수촌이 있는 조지아대학의 기독교회관을 올림픽 운영위가 빌려 불교·기독교 등을 위해 6개 방을 마련한 것. 각 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개방하며, 종교의식을 돕기위해 자원봉사자 2명이 상주한다. 종교의식을 돕는 단체는 종교의식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엘머 고블'이며, 이 단체에 소속된 종교 지도자 37명이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선수들의 종교 생활을 돕게된다. 운영위 측은 앞으로 선수단의 요구가 있을 때 기타 종교의식 진행을 위한 방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종교관 현관 오른쪽 벽에는 올림픽 기간동안 참가 선수들에게 종교관을 헌정한다는 조지아대학 학생들의 헌정사가 형형색색 쓰여져 있으며, 현관 내부에는 커다란 세계지도를 마련해 선수들이 자신의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목탁소리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첫 주지 공채

지난주 교계신문에 주지스님을 찾는다는 광고가 있었다. 공개적으로 주지스님을 공모하는 것은 조계종단 역사에 있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광고는 수행자를 명예라는 굴레에 글어들이는 것 같아 당혹스러운 한편 신선하다는 느낌이 교차됐다. 급변하는 사회를 불교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광고의 주인공은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스님은 은해사 말사인 인각사의 주지를 찾고 있었다.

인각사는 보각국사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성지이다. 퇴색해가는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조국통일 이후의 정신적 통일을 위해 한민족의 정사가 탄생한 인각사를 성역화하겠다는 것이 법타스님의 원력이다. 이를 위해 인각사 주지로 역량있는 스님을 모신다는 것이다.

주지는 사찰의 주권자이면서 재산과 수행자들을 외호하는 승려이다. 예전에는 사판승으로 분리되어 서로 주지를 맡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주지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소속 스님은 1만여명에 이른다. 그렇지만 종단에 등록된 사찰이 2천여개여서 주지의 적체현상이 심한 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지임명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이 비일비재하다.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에게 주지임용의 기회가 주어지기보다는 문중이나 개인적인 친분여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법타스님은 새로운 인각사 주지에게는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본사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역사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고찰은 개성을 살려주기위해 계속 역량있는 주지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지공모가 세속에서의 신입사원 모집하듯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스님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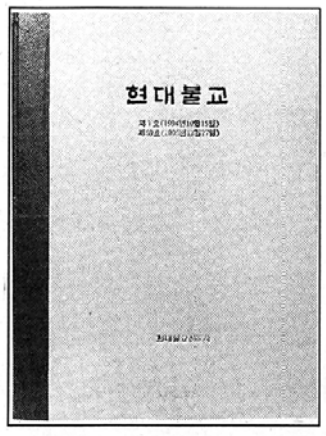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 가 격 : 50,000 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전국지사 · 지국 보급소 모집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법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일할 지사,
지국 보급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1. 자 격 : 주소지에 3년 이상 거주하신분, 불심이 돈독하여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 자필 이력서 1통, 주민등록 등본 2통
3. 대상지역 : 전국 각 도 · 시 · 군 · 구
※ 광주, 부산, 대구, 목포, 공주, 사천, 제주, 강릉, 부천지역 제외
4. 모집기간 : 96년 7월1일 ~ 7월 31일
5. 선 발 : 서류전형후 개별 통보
6. 보 낼 곳 :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8881, 팩스 : 737-0697

현불뉴스

봉은사 신도회 발기

봉은사 신도회 발기인대회가 지난 20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열려 창립준비위원장에 최호정 거사림회장을 추대했다.

봉은사는 그동안 신도교육을 통해 구역법회와 거사림 불교대학동문회 청년회 등 여러 신행단체가 활발히 운영되어 왔다. 봉은사신도회 창립법회는 8월말 봉행할 예정이다.

불자교사 연수회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은 '제15회 전국 초중고교 교사불교연수회'를 오는 8월7일부터 10일까지(3박4일) 경주 서울장에서 개최한다. 강사에 이기영박사 정병조교수. (02)3411-6167

교사불교학당 개설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은 24일부터 26일까지 교사불자를 대상으로 '교사불교학당'을 개설한다. 불자교사의 올바른 신행활동과 청소년 포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62)228-9098

불교TV 육법공양회

불교TV 산하 육법공양회(회장 하묘엄행)가 지난 15일 마포 석불사에서 창립됐다. 〈사진〉

이날 창립법회에는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승가대 폐쇄

불국사는 승가대학생들의 폭력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긴급 대중회의를 열고 15일자로 승가대학을 폐쇄조치했다.

고성어린이 서울구경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동회장 설조·안동일)은 고성 죽왕초등학교 어린이 60여명을 초청해 오는 29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서울견학을 실시한다.

34명에 경봉장학금

(사)경봉장학재단(이사장 원명)은 경봉대선사 14주기를 맞아 지난 12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제12차 경봉장학금 2천2백여만원을 34명에게 전달했다.

불교교양대도 정규대승격 가능

대원·동산등 설립기준 충족…8월말까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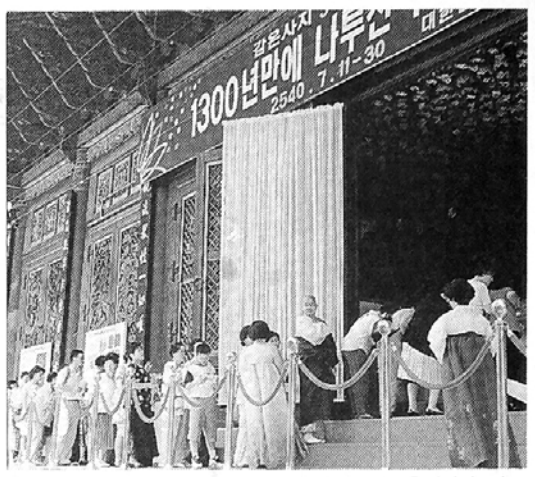
중앙승가대학과 지방승가대학(강원)은 물론 50여개 불교교양대학도 일반 정규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게돼 정규대승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교계에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극단적으로 1명정원에 1개과인 대학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가능토록 하는 등 총정원 설치학과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종단의 행정적 물적지원과 교양대학측의 추진의지만 합의된다면 불교교양대학의 정규대 승격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인문사회계열(불교학과)의 경우 3.6평을 학생 1인당 면적최소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교지는 정원 4백명이하인 경우 교사만 있으면 되고, 학생 25인당 교원 1인만 확보하면 대학설립 및 정규대 승격이 가능하다. 또 교육부는 수익용재산의 경우 부실대학의 난립을 막기위해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 5%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대학설립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9월중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와관련 발족당시 불교교양대학의 각종학교승격 추진의지를 밝힌 전국불교교양대 대표자협의회 김재일법사는 "단기 3개월, 6개월 단위의 불교교양은 차치해 두더라도 2년제 불교교양대학으로 어느 정도의 공신력과 학제 학사운영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대원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 10여개 불교교양대학의 경우 교사 교지 교원 재정규모(수익용재산)에 대한 요건만 구비한다면 불교계의 위상과 면모를 갖춘 정규대학으로 새롭게 자립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교양대학이 정규대로 승격하기까지는 각 불교교양대학과 종단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의지와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학교법인의 이사영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교교양대학을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교육위원의 구성과 수업평가제 교수법개선 등 사후관리의무화방안의 마련도 과제로 남아있다. 〈도필선 기자〉



사리친견 행렬 경주 감은사지 3층석탑과 나원리 5층석탑서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 69과가 모셔진 조계사 법당앞에는 하루평균 1천여명이 넘는 물자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번 부처님 사리친견법회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며 친견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사진=고영배 기자〉

은해사 '일연학 연구원' 발족

8월20일 삼국유사 집필한 인각사 성역화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법타)는 8월20일 일연스님 재일을 맞아 (가칭)일연학연구원을 발족한다.

일연학 연구원은 일연스님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삼국유사〉의 저술지 인각사를 성역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각사 주지가 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은해사는 인각사 주지를 종단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초빙한다. 인각사 주지자격은 승납 15년이상 비구계를 수지하고 일연스님의 업적, 삼국유사에 관해 연구한 스님으로 2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청소년·군인등 입장료 인하

삼화사·비로사 문화재사찰로

조계종 관람료委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는 지난 18일 2차 관람료위원회를 갖고 동해 삼화사(주지 원행)와 영주 비로사(주지 태주)를 문화재관람료사찰로 지정했다. 이로서 문화재관람료사찰은 59개로 늘었다.

관람료위원회는 또한 합동징수사찰 주지들이 건의한 청소년 군인 어린이의 문화재관람료를 공원입장료의 비율에 따르기로 재조정하고 1차회의에서 확정한 관람료를 재결의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문화재관람료사찰로 지정된 삼화사는 삼화사삼층석탑(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13호)과 삼화사철불(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12호)가 있으며 비로사에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아미타불좌상(보물 제996호) 등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의정부교도소서 불교강좌

재소자 100여명 요청 봉선사서 주관

교화·포교 한몫…매월 정기화 계획

'應無所住 而生其心(응무소주 이생기심)-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곧 시간과 장소 현재 처해진 조건에 구애없이 마음을 내면 지금 이 자리가 도량이며 모든 존재가 바로 부처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의정부교도소, 언뜻 갇힌 곳이라는 갑갑함과 범법자들이 모인, 정토와는 너무 거리가 먼 곳으로 여오른다. 그러나 금강경의 말씀이 이르고 있지 않은가. 교도소가 법당이며, 그 사람들이 부처임을.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22일부터 3일동안 12시간에 걸쳐 불교교리와 사찰예절, 달마체조를 과목으로 설치, 불교교리반을 개설해 운영했다. 지도법사는 봉선사 포교국장인 묵암스님. 6월에 이어 두번째로 올 11월 과정을 모두 마치면 수계식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교도소에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위한 강좌가 마련되기는 의정부교도소가 처음이다. 의정부교도소의 불교교리반 개설을 이곳에서 생활하는 재소자들의 요구와 묵암스님의 도움에 따른 것.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하던 중 지난 6월 재소자들이 불교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법회 때마다 다른 종교행사보다 항상 많은 1백여명 안팎의 재소자들이 참석했다. 스스로 법회를 준비했으며, 봉선사에서 선물한 합장주를 꼭 지니고 생활했다.

묵암스님은 교도소측에 정신교화시간을 할애해줄 것을 요청했고, 교도소측도 재소자 교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 이 과정에 독실한 불자인 교무와 여운철계장의 원력도 한몫을 했다.

묵암스님은 "재소자들의 적극성에 놀랐다.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을 재소자들이 먼저 했다"며 오히려 고마움을 표했다. 바쁜 사중의 일정도 뒤로 미루고 의정부교도소 불교교리반에 마음을 쏟고 있다.

의정부교도소는 재소자들이 불교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선사에서 후원키로 함에 따라 매월 불교교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운문사 쓰레기수거료 징수 '말썽'

청도군 조례개정 봉투강매…입장객 부담 가중

청도군이 군립공원인 운문사계곡과 인근 쌍계리계곡을 찾는 입장객에게 쓰레기수거비용으로 1천원 이상씩 받고 있어 지방정부의 월권행위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청도군은 지난 3월 '청도군 일반쓰레기 관리조례' 제13조를 개정, 운문사계곡과 쌍계리계곡 일대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의 기간동안 이 지역을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를 강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도군은 이 조례에 따라 20ℓ 혹은 50ℓ들이 쓰레기봉투를 입장객 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고 각각 1천원과 2천원을 받고있다.

문제는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운문사계곡의 경우 이미 문화재관람료와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어 입장객들에게 3중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외지에서온 스님을 포함한 사찰 참배객에게도 일괄징수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대해 청도군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이 지역은 식수원인 운문댐 상류지역이어서 철저한 쓰레기수거가 필요하다"며 "쓰레기장비 조달 및 인건비 충당을 위해 조례개정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찰을 방문하러온 한 스님은 "사찰참배객에게도 적지않은 쓰레기수거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현재 청도군은 공익근무요원 10여명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매일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다.

해인골프장 환경평가 민간연구소 25일 발표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해인총림대책위 대구경북대책위 등은 민간단체인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에 의뢰, 1차로 15일부터 3일간 2차로 20일부터 이틀간 골프장예정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이경재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팀과 김용식교수(영남대 조경학)팀은 동식물생태계를, 양운신교수(경남대 환경보호학)팀은 수질영향조사를 벌였으며 오는 25일경 조사결과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본부에 골프장문제를 상정하는 것을 유보키로 했다. 유네스코 관계자는 "이는 국립공원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세계적 유례가 없는 국제적 수치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고 밝혔다.

조계종 위탁시설 종사자 호주연수

보육·양로·종교복지 선진시설 견학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복지선진국인 호주에서 종단위탁시설종사자 해외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종단위탁시설 종사자들의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선진문화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종단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는 종단 최초로 책정된 위탁복지시설관리비에 의해 집행된 연수교육으로, 교계복지진흥책을 위한 종단차원의 지원이어서 의미가 크다.

원소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을 단장으로 교계 복지시설 시설장 및 실무자 14명이 참여한 연수단은 사회복지사무소, 아동보육시설, 노인양로시설, 종교복지시설 등 호주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했다.

한마음선원 학생수련 27일부터 팔공산서

한마음선원 전국연합 학생수련회가 오는 27일부터 2박3일간 팔공산 화랑수련원에서 전국지원의 지도법사스님 및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또한 전국연합 청년수련회는 오는 8월10일부터 2박3일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호국원광사 신도회장 전상배장군 취임

국방부 호국원광사(주지 한상길법사)는 지난 21일 법당에서 신임 불교총신도회장 전상배장군(합참 민심부장)의 취임식을 불자장병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임 총신도회장 이석복장군의 이임식도 함께 봉행됐다.

장애불자 특별수계

국립재활원 불교법우회

국립재활원 불교법우회(회장 김영숙·양재과)는 지난 14일 인천 송도해변에서 지도법사 정진스님(보문사 주지)의 주관으로 재활원 직원불자, 장애인 법우 및 가족들과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야외법회를 겸한 특별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구독신청 : 737-0691

마음 한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을 뚫다가 말고 또 뚫다가 말면 물구경 하기 어렵습니다. 생수가 터질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우직하게 먹고 나가야 합니다.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봉축법회 식순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재
1. 우란분재의 연원
2. 우란분재란
3. 우란분재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1. 나복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간 목련존자
3. 우란분재를 올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베풀라 하신 참뜻은?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원성군 진언과 부적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3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72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孝 사상의 3大 경전 부모은중경 우란분경 목련경을 한데 모았습니다.

우란분절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②

부모님에 대한 孝사상을 고취시키십시다.

부모은중경 · 목련경 ·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우란분회에 대하여, 우리말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효사상이 고갈된 현시대에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의 고취는 물론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 부모은중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 우리말 부모은중경
제2부 • 목련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 우리말 목련경
제3부 • 우란분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 우란분회란 • 우리말 우란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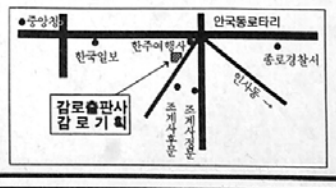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가격/1권당 1,2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장경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 금장 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건강백세 ⑱

인후편



인후는 인두와 후두를 합해서 말한다. 입안에 위치하여 외부로 보이지는 않지만 역할이 중요하여 그기능과 일어날수 있는 질환을 알아두는 것은 여러가지면에서 중요하다. 더구나 요즘처럼 공해가 심각하게 심해지고 보면 가장 예민하게 영향받는 인후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두는 코와 연결되는 비공(鼻孔)과 식도(食道)사이에 있는 얇은 근막으로 된 주머니 같은 모양으로된 부분이며, 후두는 기관의 상단부와 설근(舌根), 설골(舌骨)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인두는 위로는 후두, 구강, 비강 및 이관으로 연결되어있어 마치 식도의 출입구와 같은 느낌을 주며 후두는 기관내 이물의 침입을 괄약근(括約筋)수축에 의해서 방지한다. 이차적이긴 하지만 발성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두가지 기관이 모두 목안에 들어있어서 점막으로 덮혀있다. 적절한 습윤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의 이물이나 온도 습도 등 기후 조건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음식을 먹는 도중에 잘못되어 식도로 들어갈 음식이 후두를 건드리면 본능적으로 재채기를 하여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맵거나 독한 자극성 냄새 또는 연기등을 말을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한두번쯤 경험했으리라 본다.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온도가 높거나 낮았을때 적응하려는 본능에 의해 점액성 분비물이 나와서 점막을 보호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가래라고 부르며 자꾸 뱉어내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막을 자꾸 제거해 버리는 결과가 되어 계속 분비를 유발 시키게 되고 심할경우 표피에 무수히 모세혈관이 발달된 곳이라 출혈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의 자극성 반응은 일종의 위해요소로부터 피하라는 경고적 의미가 담겨진 신호로 보고 원인제거를 신속히 함으로써 상태의 악화를 막을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알레르기현상도 점막아래 있는 특수한 세포(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가렵게 고통을 주어 원인이 되는 조건을 피하게 하려는 자연의 혜택이다.

인후부는 특별히 호흡과 식사를 통해서 인체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루트'중의 하나이다. 안전한 음식과 쾌적한 공기의 선택은 절대적이다. 또한 외감에 의해 많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별히 인후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분별되어 치료법도 잘 개발되어 있지만 우선 예방이 필요하다. 외출에서 귀가후, 특히 먼지많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목안을 씻어내고 세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한약재 가운데 식용으로 쓰이는 도라지는 인후를 보호해주고 염증을 수렴시키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 공해를 막아주는 귀한 약용성 식품이다. 약간 씁쓸한듯한 맛속에 유효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가래자주 뱉으면 출혈…외출후 목헹굼
외부조건 민감…도라지 염증 잘 다스려

죽음을 이긴 어머님 ㊦

주부신행담

어머니앞에서 감춰야 했던 슬픔덩이가 송두리째 쏟아져 오랫동안을 얼으려 울고만 있었다. 눈꺼풀의 중량을 무겁게 느끼며 천천히 부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영상처럼 겹쳐보였다. 핏발선 눈을비벼 몇번을 바라보아도 마찬가지였다. 흔치않은 경험이었다.

잠시 후, 나는 혼란스러웠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피 토하는 고통을 감당하면서라도 제발 살아계시길 빌어야 할지, 하루에도 몇번씩 이승과 저승을 들락거리는 고통을 끊고 편히 가시도록 빌어야 할지.

망설임을 알아 차린듯 스님께서 답을 주셨다. 부처님은 이미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니 열심으로 절을 해보라고. 굽힌 무릎을 펼 수 없을때까지 정말 열심히 절만 하였다.

이튿날, 제대로 디뎌지지 않는 발걸음을 간신히 추스려 법당을 나설때에 느꼈던 평온함이란 마치 잔잔한 강물위에 푸른 하늘을 이고 누워있는 신선이 된 기분이었다.

이름하지 못하는 바램까지도 모두 말아 헤아려 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것이리라.

그 날을 계기로 매주 토요일이면 법당에 들어박혀 절을 하고 슬픔을 풀어놓고, 번뇌를 조이렸다.

나의 기도는 경건하게 때로는 응석처럼 간혹은 투정으로 부처님께 쏟아놓는 눈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해지고 초연해지는 내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절실함이나 간절함을 굳이 소리내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그 분앞에 내가 있음으로 이미 말하고자 하는 전부를 보고 계셨으니까.

어느 날인가 무엇에 홀린 몸짓으로 절의 누구와 시합이라도 하듯이 절을 하였다. 전신은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되어 오로지 엎으리고 일어서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3시간여 동안 그러다보니 사지가 후들거리고 도저히 더이상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달아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참선자세로 앉아 있을때였다. 감긴 눈 앞쪽이 눈부시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순간, 혹시 초가 다 녹아 그 주위것에 불이 번졌나싶어 눈을 번쩍 떴다. 주위에 불길에 잡힐만한 무엇이 있을리는 만무였다. 법당문 틈사이로 스미는 달빛도 양전하고 향사위



그림 · 이준식

누구와 시합이라도 하듯 절을 했다
사지가 후들거려 가부좌로 앉으니
갑자기 눈이 부셨다 "꿈인가…"

번진 희뿌연 연기속에 은은한 촛불역시 한 점 흔들림없이 꼿꼿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앉은채로 잠깐 꿈을 꾼것인지.

다음날 산을 내려와 친정에 들렀을 때 어머니는 간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찾아와 문을 열었는데 밖이 어찌나 캄캄한지 모습은 안보이고 목소리만 들으셨단다. 지금 가려는 곳은 부귀영화에 호의호식하며 평생을 부러울 것없이 사는곳이라 서로 앞다퉈 들어가려는데, 일단 들어가면 자식들 보고싶어도 나올 수가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셨단다. 아무리 좋은곳이라 해도 순서를 기다렸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더란 것이다. 그래서 꿈에서조차 너무 오랜만이라 좀 들어오라고 하니 급히 가 볼 곳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며 나중에 오겠다는 아버지를 급히 부르다 눈을 뜨셨다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40분이 조금 넘은시간이었다고. 나는 전신에 우르르 진동이 느껴졌다.

간밤 법당에서 내가 눈부셔했던 그 시간과 얼추 들어맞는 시간대였던 것이다.

엇비슷한 시간에 각기다른 곳에서의 꿈. 그것은 하나의 희망이기도 했고 두려움이기도 했다.

지루하고 힘든 투병이 장기화되면서 어머니는 나름대로 석연찮은 예감과 예사롭지않은 증세에 히스테리와 무기력을 악순환시키고 급기야 곡기를 끊은채 약조차 거부하셨다.

우리는 마침내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신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드려야한다고. 심장이 파열하는 비명은 오히려 신음으로 뭉쳐졌다. 들박이는 어깨를 힘주어 놓고 우린 어머니의 병이 암이란 사실과 지금 상황에선 수술도 불가능하기에 끈기있는 의지로 병마를 물리치자고 설득하였다.

신 경 희
〈수원시 송죽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㊴

♦ His birth did not prevent him from being re-born in the Brahma world ; on the other hand there are Brahmanas, born in the family of preceptors, friends of the hymns of the Vedas

그들은 브라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반면 베다 독송하는 사람의 친구나 교사의 가정에 태어나 금귀에 친숙한 바라문들이 있다.

♦ But they are continually caught in sinful deeds, and are to be blamed in this world, while in the coming (world) hell (awaits them); birth does not save them from hell nor from blame.

그러나 그들은 나쁜 행위에 빠져들고 현세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내세에는 나쁜 곳에 태어나오. 신분이 높은 태생도 그들이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비난받는 것을 막을 수 없소.

♦ Therefore not by birth does one become an outcast, not by birth does one become a Brahmana, by deeds one becomes an outcast, by deeds one become a Brhmana.

따라서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오로지 그 행위로인해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 This having been said, the Brahmana Aggikabharadvaga answered Bhagavat as follows: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사뢰었다.

♦ Excellent, O venerable Gotama! Excellent, O venerable Gotama! As one, O venerable Gotama! raises what has been overthrown, or reveals what has been hidden.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었습니다.

* preceptor (n) 교사

오증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돈 황 ⑭
이노우에 야스시 作



그림 · 심민섭

전란의 화를 피해 경전 1만권이 천불동 동굴 깊이 숨겨졌다

주왕례의 부대는 반역을 하기로 했다. 아니 부대의 지휘자인 주왕례의 반역결심이 모든 부대원들에게로 전이되어 마침내 행동화되고 있었다. 주왕례는 위글왕녀를 이원호에게 빼앗긴 개인적 감정과 서하의 군사들이 전장에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닥치는대로 살육을 하는 불인정에서 반란의 의지를 불태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주 나쁜 때였다. 토번의 각시라를 공략키위해 청당을 치는 싸움에서 그는 삼천 오백의 부하를 잃고 돌아 왔다. 그리고 과주로 이원호가 입성하는 날을 반역의 날로 삼은 것이다.

"그놈을 반드시 내가 해치우겠다"

조행덕은 이미 범접 못할 올분으로 서 있는 주왕례를 위해 자신도 싸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싸움은 치열했으나 숫적으로 워낙 불리한 주왕례의 군사는 퇴로를 걸어 사주로 향해야 했다. 사주는 조연혜의 형 조한순이 절도사로 있는 곳이었다. 조연혜의 군사와 주왕례의 군사는 사주에서 이원호를 상대로 대결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주는 과주 이상으로 불교가 번창한 나라였다. 조행덕은 곳곳의 절과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의 경전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이원호의 부대는 사주를 향해다가오고 있었고 주왕례는 그들을 맞아 싸우기 위해 사막으로 나아갔다. 그런동안 을지광이 나타났다. 그는 어짜피 함락될 사주에서 진귀한 물건을 챙겨보자는 속셈 말고도 조행덕의 구슬목걸이에 관심이 많았다. 위글의 왕녀가 이별의 정표로 주었던 그 목걸이에 을지광은 반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성이 함락되기 직전임에도 집요하게 목걸이를 요구 했고 조행덕도 끝까지 버텼다.

"그 목걸이를 주면 아무도 모를 비밀한 곳에 숨겨 주겠다"는 을지광의 설득. 조행덕은 그 설득조의 말을 들으며 그 비밀한 곳에 숨겨야할 진짜 보물을 떠올렸다. 절도사 조한순이 전사한데 이어 주왕례마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 온 사주성의 위기에서 모든 사람이 피난을 갔지만 한 사찰의 승려 세명은 가지 않고 경전을 싸고 있었다. 그 엄청난 분량의 경전을 불길속에 그냥 버릴 수 없다며. 조행덕은 을지광을 이용해 그 경전중 일부를, 일부이지만 일만권이 넘는 분량의 책을 비밀한 그곳에 숨길 수 있었다. 그곳은 명사산의 천불동이었다. 사주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곳에 조성된 석굴사원의 빈 동굴에 경전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세 승려의 신심과 을지광의 탐욕 그리고 조행덕의 뒤늦은 불심때문이었다. 조행덕이 불경을 화마에서 구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비운의 위글왕녀의 넋을 기리고 싶은 조행덕의 순결한 사랑이었다.

그후 천불동은 수백년을 세상으로부터 묻혀 있었고 한 어리석은 승려에 의해 영국인과 프랑스인에게 대부분의 경전이 헐값에 반출되고 말았다. 조행덕의 불심과 사랑의 역사는 명사산 모랫바람만 기억할 것인가.

